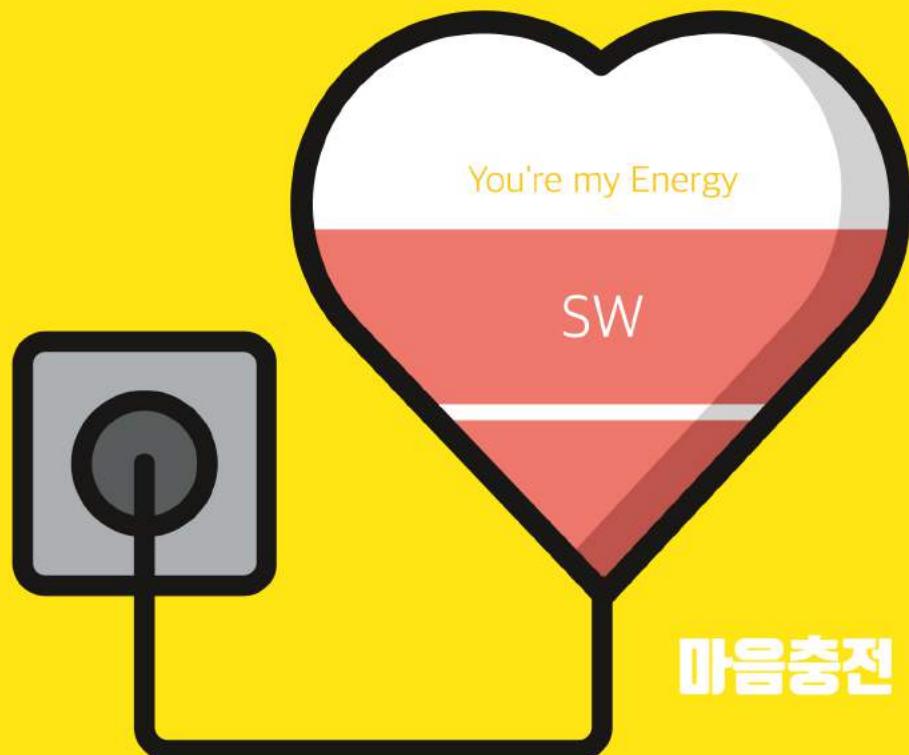


별을 쏘다 ☆

SUNGWOO HITECH MAGAZINE

2018. AUTUMN vol. 018



별을 쏘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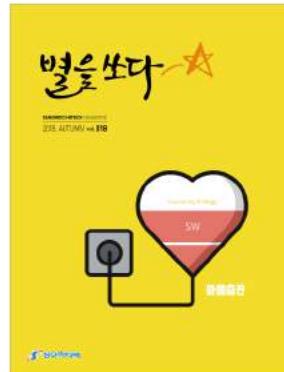
2018 AUTUMN vol. 018

발행일 : 2018년 11월 26일 (통권 제18호)
발행인 : 이명근 사보기자, 강승호, 김도형, 김태우, 김태훈,
남창식, 문해준, 박노실, 박은혜, 신민환, 이수승, 이승우, 정영화,
최성욱, 최수영 (가나다순)

발행처 : 성우하이텍 www.swhitech.com

(인사노무팀 Tel. 070-7477-6233)

기획 및 디자인 : 미디어줌 (Tel. 051-623-1906)



두근두근 Heart Beat

INSIDE SUNGWOO

04 Issue & News

06 New SUNGWOO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 - 성우혁신사관학교 1기 수료

08 Education 단생산사(團生散死), 생즉필사 사즉필생(生卽必死 死卽必生)
명연설에 담긴 리더의 자질

12 Challenge SUNGWOO 가을의 정점을 달리다
성우하이텍과 함께하는 2018 부산바다마라톤대회

14 현장24시 최고의 역량은 '도전정신'

18 Safety 3천여 명의 목숨을 구한 신념
완벽한 "안전사업장"을 위해 - 아산성우하이텍 안전결의대회

22 Campus Recruiting '글로벌 성우하이텍'의 새 얼굴을 찾아서
- 성우하이텍 캠퍼스 리크루팅



스마트폰으로
성우하이텍 사가(社歌)를
만나보세요.

SPECIAL THEME : Heart

24 Photo Essay 내 마음 속 최애♥ 순간 포착, 그때를 생각하면 심·쿵·해~



- 28** Art Story 그대를 향한 마음 한 점 한 점 사랑이 되어 - 앙리 마르탱
30 Column 마음의 소리를 들을 때 생기는 일
34 Love Letter 사랑하는 이에게 보내는 절절한 고백, 예술이 되다 - 예술가들의 뮤즈
38 SUNGWOOD Family 세 배의 사랑, 행복, 기쁨
40 Heart to Heart 평생 만나고 싶은 '내 사람' - 신차품질 1, 2팀 임지은·진수민 사원

FUN SUNGWOO

- 42** Tasty Road 디저트카페, 소중한 사람과 달콤한 행복을 주문해요
46 Work and Life 워라밸 시대 - 성우인의 일상을 살짝 엿볼까
50 Going 꼽꽁 얼어붙은 겨울도 하얗게 태워! 핫하게 태워!
열기 가득한 얼음나라의 겨울축제
56 Manners Makes Man 미국의 비즈니스 매너
58 People 푸른 눈의 외국인이 남긴 큰 족적

성우혁신사관학교 1기 수료식



8월 31일, 서창공장 대강당에서 성우혁신사관학교 (SHiOTS, Sungwoo Hitech Innovation Officer Training School) 1기생들의 최종 발표회 및 수료식을 개최하였다. 첫 순서로 강하고 유연한 제조현장을 만들기 위하여 지난 6개월간 노력한 성과를 임직원들에게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1기 수료식에서는 수료배지(Badge)와 함께 성과에 따른 포상도 있었다. 6개월간 활동상황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거쳐 1등 나현진 반장, 2등 박창균 조장, 3등 한영하 조장에게 소정의 상금도 전달하였다. 성우혁신사관학교 1기는 3월 5일 출범식을 시작으로 5월 31일 중간 발표회를 거쳐 이번 수료식을 마지막으로 종료되었다. 1기 수료생들은 교육을 통하여 습득한 지식을 통해 현장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성우하이텍의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다.

» 관련 기사: 6p

BCMS 모의훈련 시행



9월 19일, 서창공장에서 BCMS 모의훈련을 시행하였다. BCMS(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System, 업무연속성 관리체계) 훈련은 지진, 태풍, 폭우, 낙뢰 등의 재난으로 화재, 붕괴, 침수 발생으로 인한 인명 및 설비, 제품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빠른 수리 및 복구를 통해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날 훈련은 전 직원이 참여하는 집체 훈련(1부)과 상황 실을 구성한 지휘소 훈련(2부)으로 진행되었고, 임직원들의 진지한 참여 자세 덕에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 관련 기사: 18p

성우혁신사관학교 2기 입교식



10월 1일, 서창공장 대강당에서 성우혁신사관학교 2기생들의 입교식이 진행되었다. 15명의 조·반장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2기 과정은 6개월간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교육, 선진기업 현장 방문, 고유의 노하우 공유를 통하여 강하고 유연한 제조 현장 실현을 목표로 한다. 이문용 성우혁신사관학교 교장(대표이사 사장)은 격려사를 통해 1기생들의 성과를 이어 받아 한 단계 더 도약하는 6개월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며, 회사도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 » 관련 기사: 6p

성우하이텍과 함께하는 2018 부산바다마라톤대회 개최



해양도시 부산의 절경을 흡뻑 즐길 수 있는 '성우하이텍과 함께하는 2018 부산바다마라톤대회'가 10월 7일 오전 부산 해운대 및 광안리 일대에서 열렸다.

태풍 콩레이의 영향으로 대회 전날까지 정상적인 운영을 걱정했지만, 당일에는 말끔한 하늘이 1만 5천여 명의 건각들을 맞이하였다. 이번 대회는 광안리 해수욕장, 수영 강변, 센텀시티, 영화의 전당 등 대표적인 부산의 풍경을 만끽할 수 있도록 코스를 구성하여 5km, 10km, 하프코스 3개 부문으로 진행되었고, 타악기 연주 밴드 라퍼커션이 신나는 연주로 참가자들의 기운을 북돋웠다.

성우하이텍, 아산성우하이텍 가족들도 선선한 가을바람을 맞으며 광안대교 위를 달릴 수 있는 훈치 않은 귀한 경험을 만끽하였다. 가족, 연인, 친구들과 함께 걷고 뛰며 일상의 스트레스를 날려 보낸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 관련 기사: 12p

무재해 달성을 위한 아산성우하이텍 안전결의대회 개최



10월 24일 아산성우하이텍은 200여 명의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무재해 달성을 위한 아산성우하이텍 안전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임직원들은 결의문을 낭독하며 무재해 사업장 달성과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확보하기 위해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자고 다짐하였다. 인사정보사업본부 도종복 부사장이 무재해기를 직접 전달하며 참석자들의 안전 의지를 높였고, 아산사업본부 정재호 전무는 "오늘 자리가 보여주기 행사로만 끝나지 않도록 나와 내 가족의 행복을 위해 안전에 관한 한 기본과 원칙을 철저히 지키자"고 당부하였다. » 관련 기사: 20p

2018년 성우하이텍 신입/경력 공개채용

JUNGWOO HITECH

성우하이텍의 미래를 개척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소통형 인재를 찾습니다

2018 성우하이텍 신입/경력 공개채용

지원 기간: 2018년 9월 3일(월) 08시 ~ 9월 17일(월) 17시

접수 방법: 성우하이텍 채용홈페이지 통해 온라인 지원 접수 (<https://swhitech.recruiter.co.kr>)

9월 3일부터 17일까지 채용홈페이지(<https://swhitech.recruiter.co.kr>)를 통해 <2018년 사무관리직 신입/경력 공개채용> 지원 접수를 받았다. 채용 전형은 서류 전형, 1차 면접(인·적성 검사, 그룹 토론, 실무 면접), 2차 면접(영어 구술 면접, 임원 면접), 신체검사 순으로 진행되고 있다. 최종 전형에 합격 시, 신입의 경우 인턴사원으로 선발되어 3개월의 인턴 과정을 거친 후 최종 입사가 결정된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글로벌 업체와의 치열한 경쟁을 함께할 소통형 인재들의 입사를 기대한다.

» 관련 기사: 22p

‘끌’이 아닌 또 다른 ‘시작’

성우혁신사관학교 1기 수료

그날 아침 두 길은 똑같이 놓여 있었고
낙엽 위로는 아무런 발자국도 없었습니다
아, 나는 한쪽 길은 훗날을 위해
남겨놓았습니다!
길이란 이어져 있어 계속 가야만 한다는 걸
알기에 다시 돌아올 수 없을 거라 여기면서요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어디에선가
나는 한숨지으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고, 나는-
사람들이 적게 간 길을 택했다고
그리고 그것이 내 모든 것을 바꾸어놓았다고

- 로버트 프로스트
<가지 않은 길> 중



가지 않은 길을 개척한 6개월

아무도 가지 않은 길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다. 풀이 무성하고, 어디서 무엇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고, 어쩌면 앞이 막혀 있을 수도 있는 길. 그렇기에 그 길을 선택하는 이들을 ‘선구자’라 칭하며 도전을 응원하게 되는 것이다.

성우혁신사관학교(SHiOTS, Sungwoo Hitech Innovation Officer Training School) 1기생들이 걸어온 지난 여정 역시 이와 다르지 않았다. 현장을 누비던 베테랑 조/반장들은 촘촘히 나뉜 일정에 따라 한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개척해 나아갔다. 일일 학습일지를 쓰고, 독후감을 작성하고, 3개월씩 두 번에 걸쳐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10여 명의 사내 강사 및 외부 강사의 다양한 직무교육과 리더십 교육도 수료해내었으며, 4박 5일간 진행한 일본 연수를 통해 세계 자동차 시장의 1위를 넘보기도 했던 도요타 및 주변 사업장을 방문하였다.

적게는 10년, 많게는 30년 가까이 된 베테랑들을 업무까지 All-Stop하고 오로지 교육에만 매진하게 한 것은 회사로서도 적지 않은 위험과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다. 이처럼 성우혁신사관학교는 노사 모두에게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해야 하는 도전 그 자체였다.



1기 성공에 힘입은 2기 출범

6개월의 도전 과정을 수행한 성우혁신사관학교 1기생들은 지난 8월 31일 서창공장 대강당에서 최종 발표회 및 수료식을 가졌다. 강하고 유연한 제조현장을 만들고자 지난 6개월간 노력한 성과를 임직원들에게 발표하는 시간. 중간 발표회 때보다 더 깊이 있는 프로젝트 주제, 한층 더 자신감 있게 발표하는 수료생들의 모습에 동료들은 격려의 박수로 화답하였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수료배지(Badge)와 함께 성과에 따른 포상도 주어졌다. 프로젝트를 준비하며 현장과 사무실을 누볐던 1기생들은 지난 6개월의 고생을 보상받은 듯 마지막 과정을 온전히 즐겼다.

그리고 지난 10월 1일. 성우혁신사관학교 1기의 성공에 힘입어 2기가 출범식을 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습득한 지식을 통해 현장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을 다짐한 1기생들이 이어, 다시 한 번 열정적인 도전을 이어갈 성우혁신사관학교 2기생들. 이 과정이 2기생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유의미한 여정이 되기를, 나아가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성우하이텍의 역사가 되기를 기대한다. 

성우혁신사관학교는 노사 모두에게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해야 하는 도전 그 자체였다.



단생산사 團生散死

생즉필사 사즉필생 生卽必死 死卽必生

명연설에 담긴

트레너의 자질





2018년도 승진자 교육이 경남 통영(부장&차장/과장)과 글로벌품질확보동(대리)에서 각 2차수에 걸쳐 진행 되었다(통영: 9월 10~11일, 17~18일/ 글로벌품질확보동: 11일, 18일).
‘경영현장에서 만나는 이순신 리더십’(부장&차장/과장), ‘승진자 리더십 역량과 역할 인식’(대리)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교육을 통하여 그 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승진자로서 새로운 시각을 갖기를 기대한다.

閑山島歌 한산도가

閑山島月明夜上戍樓 한산도월명야상수루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혼자 앉아

撫大刀深愁時 무대도심수시
큰 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 하는 차에

何處一聲羌笛更添愁 하처일성강적경철수
어디서 일성 호가는 남의 애를 끊나니

승진자들이 한산도 수루에 올라 <한산도가>를 함께 읊어 본다. 1592년 4월 13일(음력), 임진왜란이 발발했다. 육지에서 일본 군은 가히 파죽지세였다. 여진족 토벌에 혁혁한 공이 있던 조선의 양대 명장 이일과 신립도 일본군의 기세를 꺾지 못했다. 비운의 양대 명장은 충주 탄금대에서 배수의 진(背水之陣)까지 치며 용감하게 맞서 싸웠지만, 결국 전멸했다. 20일 만에 서울을 함락하고, 평양성까지 함락한 육지의 일본군은 의주로 피난 간 조선의 임금을 곧 따라 갈 것으로 보였는데….
육지 일본군의 진격을 바다의 이순신이 막았다. 5월 8일, 이순신은 옥포에서 첫 승리를 거둔다. 임진왜란 발발 후 조선의 첫 승리요, 적선 37척을 파괴하고 수많은 적을 수장시킨 데 반해 조선군은 단 1명 사망에 그친 일방적인 승리였다. 바다를 거쳐



평양으로 식량과 군수물품을 옮겨 육지 군사와 함께 전쟁을 수행하겠다던 일본군의 수륙병진 작전에 작은 균열이 생겼다. 그러나 여전히 자신감이 넘쳤던 일본 수군! 한산도에서 압도적인 전력으로 수륙병진 작전의 균열을 메우려 했다. 그 치열한 전투를 앞두고 이순신이 지은 시가 이 <한산도가>이다.

백전무패의 불사신 같은 무인(武人) 이순신은 사실 문인(文人)의 기질이 뛰어난 장수였다. 7년 전쟁 임진왜란을 숨 가쁘게 누비면서도 「난중일기(亂中日記)」를 저술하고, 그 속에 여러 시들을 남겼으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한산도가>는 그 중의 하나이다.

왜 그는 치열한 전쟁 속에서도 글을 썼을까?

이순신의 성공 비결은
탁월한 전략과 전술 외에도
풍부한 인문학적 소양에 있다.



세월이 흘러 1597년 9월 16일, 명량 앞바다.

원군의 질천량 해전의 패배로 이순신에게 남은 것은 12척의 배와 100명 남짓의 군사들, 그리고 시시각각 다가오는 패배의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였다.

133척의 일본 수군의 적을 둔 절체절명의 순간, 이순신은 단 두 마디의 연설을 한다.

“뭉치면 살고, 훑어지면 죽는다(團生散死).”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生卽必死 死卽必生).”

이 두 마디는 부하들과 백성들의 결사항전의 의지를 일깨웠고, 그 결과 세계 해전사에 길이 남을 승리를 거두었다. 이후 일본 수군은 다시는 조선 수군과 맞서 싸우려 들지 않았고, 기나긴 전쟁의 끝이 보이기 시작한 승리였다.

이순신이 '단생산사, 생즉필사 사즉필생'라는 명연설 대신 전략과 전술을 설명하는 데 그쳤다면?

이순신의 성공 비결은 탁월한 전략과 전술 외에도 풍부한 인문학적 소양에 있다. 좋은 글과 좋은 스피치는 인문학적 소양의 뒷받침 없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성우하이텍 승진자들은 이순신을 통하여 인문학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고, 치열한 경영 현장에서도 구성원들의 마음에 울림을 주는 리더, 원활한 소통이 가능한 리더,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성과지향적인 조직을 만드는 리더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성우하이텍과 함께하는 2018 부산바다마라톤대회

가을의 정점을 달리다



가을을 알리는 성대한 축제,

'성우하이텍과 함께하는 2018 부산바다마라톤대회'가

10월 7일 광안대교와 광안리해수욕장 일대에서 열렸다.

어느 때보다 맑고 푸른 가을 하늘 아래 펼쳐진

1만 5천여 건각들의 축제 속으로 go go~!

하늘이 선물한 가을의 축복

대회를 불과 이틀 앞두고 비상이 걸렸다. 대회 하루 전부터 당일 새벽까지 부산이 태풍 제 25호 콩레이의 영향권에 들 것이라는 예보로 인해 대회 개최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다.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부산을 통과한 태풍은 오히려 어느 때보다 맑은 가을 날씨를 선물했다. 깨끗해진 대기 덕분에 푸른 하늘이 가을의 절정을 이룬 이날 성우인들도 새벽 일찍 집결지인 벡스코를 찾았다. 아이의 손을 잡고 모처럼의 나들이에 나선 이들의 얼굴에는 시종일관 웃음이 넘쳤다. 전국 각지에서 특별한 마라톤 대회를 찾은 참가자들 및 미국과 일본, 영국, 캐나다 등 외국인 참가자들까지 1만 5천여 명의 건각들도 성우인들과 함께하였다. 명실상부 세계적인 가을 축제로 거듭난 부산바다마라톤의 위상을 실감할 수 있었다.

“태풍의 영향으로 맑게 갠 새벽 공기, 한층 짙어진 푸른색 바다와 파란 하늘,
점점이 흩뿌려진 구름이 아름다운 풍광을 선사하였다.”

참가자들은 벡스코 광장에서 몸을 푼 후 레이스를 준비하였다. 이 날 레이스는 5km와 10km, 하프 코스로 순으로 진행되었다. 5km와 10km 코스는 모두 광안대교 상판에서 출발하였다. 태풍의 영향으로 맑게 갠 새벽 공기, 한층 짙어진 푸른색 바다와 파란 하늘, 점점이 흩뿌려진 구름이 아름다운 풍광을 선사하였다. 광안대교 곳곳에서는 사물놀이패와 버스킹 밴드, 치어리딩 팀이 참가자들을 응원하며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하였다. 바다 위 다리 한가운데서 가을을 벗 삼아 달리는 특별한 경험을 어떻게 그냥 지나칠 수 있을까. 참가자들은 달리는 중간 중간 동료, 가족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며 하늘이 내려준 축제의 장을 만끽하였다. 







최고의 역량은 ‘도전정신’

시운전반

숨 가쁘게 돌아가는 생산 현장.
정확하고 일정한 패턴으로 움직이는
로봇, 지그, 작업자가 기막힌 삼박자를 만들어낸다.
최적의 생산라인을 완성함으로써 최고의 품질 확보 및
생산성 향상의 일등공신이 되고 있는 시운전반을 만났다.

도전,
하겠습니다!

시운전반의 주 업무는 신차 개발, 양산
라인 개선, 표준화 적용을 위한 전장
및 로봇의 티칭 시운전이다. 국내
OLP(Off Line Programming) 라인
설치, 고객사 이벤트 대응, 국내
라인 이벤트 종료 후 해외법인 라인
설치 시 전장·로봇의 시운전까지 도맡고
있다. 자연히 해외 출장이 잦아 전체 인원
19명이 모두 모이기란 쉽지 않다.

2016년 1월에 반이 구성되었으니 올해로 3년 차. 이전까지 외주
업체에서 맡아온 시운전 업무의 중요성에 비례한 자체 기술 인
력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였다. 관련 업무를 접해본 생산기술
반 김효철 조장을 필두로 사내 지원자 여덟 명이 모여 처음 반을
구성하였다. 이어 아홉 명이 2차로 합류하였고 올해 초 경력직
을 채용하여 지금에 이르렀다. 로봇 티칭이나 시운전, 전장 시운
전은 낯선 프로그램을 작동시키고 기기를 다뤄야 하는 일. 이벤
트의 특성에 따라 레이아웃을 잡고 라인을 구성하여 오류가 없
도록 살펴야 하는, 결코 녹록치 않은 과정이다.

“시운전반 지원 자체가 도전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험난한 동
굴을 헤쳐 나가는 심정이었지요. 스스로 선택한 길이니 힘들더라
도 부딪치면서 익혀가는 수밖에요. 노력하는 자를 당해낼 사람
은 없다지 않습니까.”



사람이 먼저인 기술

작업자가 로봇, 지그와 손발을 맞춰야 하는 생산라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작업자의 안전이다. 업무 자체가 안전과 직결되다 보니 시운전반에서 가장 신경 쓰는 것도 이 부분이다. 전장 및 로봇 설정 시 어떻게 컨트롤하느냐에 따라 작업자의 업무 부담을 줄일 수도, 사전에 사고를 예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가령 공정책임자가 제품을 놓을 때 로봇과의 간섭을 피하기 위해 툴출되는 부분이 없도록 합니다. 로봇 반경 내로 작업자가 들어가면 자동으로 가동이 멈추도록 설정하는 식이지요.”

물론 회사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라인자동화와 품질 확보 역시 놓치지 않고 있다. 아직은 노하우를 쌓아가는 단계. 어떤 일이든 그렇겠지만 기술력을 향상하는 데에는 많은 경험이 따라야 한다. 그런 점에서 체코, 중국, 인도, 독일 등 해외 사업장 라인 설치에 투입되어 경험을 쌓은 것은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올해 초 독일 G3X 양산 라인 개선 및 신공법 설비 테스트 라인 구축에 투입되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BMW사에서 별주한 첫 아이템이라는 점, 시운전반 자체로는 첫 개선 공사라는 점 때문에 뿌듯이 찾고 책임감도 많이 느꼈지요. 결과적으로 잘 마무리되어 반원 모두 빙듬해혔습니다.”

스스로 도전을 택했으니 절대 뒷걸음치지 않겠다고 의지를 다지는 반원들은 자체 교육장을 마련하여 틈나는 대로 교육하고 서로에게서 배우며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다. 자체 기술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려 시운전반의 역량을 국내는 물론 해외법인에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목표이다.

**동굴 끝자락에서
'함께' 웃을 날을
기대하며**

같은 출발점에서 낯선 업무에 투입된 시운전반에서는 동료로부터 배우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일상적인 일이다. 업무 중 난관에 부딪히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것은 물론이다. 김효철 조장이 평소 강조하는 부분 또한 소통과 배려다.

“**한원들은 끝을 모르는 동굴을 함께 헤쳐가고 있는 동반자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서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넘어지거나 뒤처지지 않도록 서로의 길잡이가 되어 의지하는 것이지요. 계속 업데이트 되는 기술과 설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마음으로 빨리 전해 나아가야 합니다.**”

업무적 이슈 외에도 되도록 대화를 많이 하는 한편 소통과 단합을 위한 모임도 자주 갖는다. 회사에서 권장 중인 호프데이, 야유회 외에도 낚시나 캠핑 등 취미를 공유하며 친목을 도모하고 단결력을 키우는 것이다. 전·후반기에 1회씩 단합회도 마련하는데, 모처럼 해외 출장자가 적은 이번 후반기에는 대운산 자락에서 1박 2일을 보낼 예정이다. 이런 노력들은 자연스럽게 업무에 녹아들어 유연한 조직을 만들고 직원 간 유대감을 키우는 등 시너지효과를 내고 있다.

익숙한 오늘에 머무르기보다 도전을 택함으로써 미래 가치를 쌓아가고 있는 시운전반. 조금 서툴고 느리지만 꾸준히 성장 중인 시운전반의 행보에 응원을 보낸다. 

작업자가 로봇, 지그와 손발을 맞춰야 하는 생산라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작업자의 안전이다. 업무 자체가 안전과 직결되다 보니
시운전반에서 가장 신경 쓰는 것도 이 부분이다.



3천여 명의 목숨을 구한 신념

2001년 9월 11일 오전.

미국 경제 성장을 상징하던 110층짜리 세계무역센터(WTC)가 테러집단의 공격을 받았다.

전례 없이 벌어진 끔찍한 비행기 납치 테러. 이 사건은 3천5백여 명에 달하는 사상자를 내며 세계 초강대국 미국을 총격과 공포로 몰아넣었다.

이 지옥 같은 테러 현장에서 직원 대부분이 살아 나온 회사가 있었다.

한 남자의 신념이 만들어낸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다.

평소와 같이 평화롭기만 하던 사건 당일. 세계무역센터(쌍둥이 건물)에 입주한 모건스탠리의 보안책임자 릭 레스콜라(Rick Rescorla) 역시 평소처럼 2,700명의 직원과 방문객 250명의 안전을 확인하고 있었다. 그리고 9시 59분께 남쪽 빌딩에 비행기가 충돌하였다. 모건스탠리가 입주한 건물에는 '대기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건너편 건물에서 남쪽 빌딩의 상황을 파악한 릭은 그러나 곧바로 '대피하라'고 정반대의 지시를 내렸다. 베트남 전쟁 참전 군인이자 잔뼈가 굵은 보안책임자로서 빠른 판단이 작동한 것이다.

평소 릭은 미국을 대표하는 건물인 세계무역센터가 테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했다. 이에 그는 다각적인 재난 대비 플랜을 마련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훈련을 받도록 하였다. 훈련은 최대한 비상상황과 근접하도록 구체적으로 진행되었다. 가령, 재난 발생 시 직원들을 복도에서 합류하도록 하고 짹을 지어 비상계단을 내려가도록 팀을 짠 후 각 팀의 리더를 지정하였다. 안전 훈련은 또한 직원들에게만 한정되지 않았다. 본사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도 반드시 안전대피로를 확인하도록 한 것이다. 평화롭기만 한 일상에서 진행되는 재난 대비 훈련은 일부 직원들은 물론 경영진에게도 환영받지 못했지만, 릭은 굴하지 않고 훈련을 반복적으로 지속하였다. 재난 상황을 대비하는 최고의 방법은 반복적인 훈련뿐이라는 신념 때문이었다. 테러의 순간, 릭의 이런 신념이 빛을 발하였다. 반복 훈련을 통해 대피 방법을 몸으로 익힌 직원들은 릭의 안내에 따라 팀별로 짹을 지어 건물을 빠져나왔다. 미리 안전대피로에 대해 교육을 받은 방문객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릭의 신념이 2,687명의 직원과 방문객 250명의 목숨을 구한 순간이었다.





모건스탠리의 사례는 직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도모하기 위한 위기관리 분야 인증인 'ISO 22301 비즈니스연속성경영시스템(BCMS) 국제 표준인증'의 중요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사건 당시 모건스탠리는 본사를 제외한 모든 지점에서 바로 다음날 업무를 재개하였다. 평소 긴급 대책 플랜을 설정하여 위기관리 시스템을 운영해온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다. 귀찮고 불편하다고 여길 수 있지만, 재난 대비 훈련은 이처럼 실제상황 발생 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살려내고 기업의 손실을 최소한으로 줄여주는 막중한 역할을 한다. 훈련을 지속해나가는 관리자의 의지와 한마음으로 임하는 직원들의 도움이 중요한 이유다.

성우하이텍은 지난 9월 19일 서창공장에서 양산소방서 대응구조과의 협조 하에 재난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날 훈련은 화재 및 응급 상황을 모의로 설정한 후 ▲재난 경보 ▲대피/집결 ▲대응/복구에 이르는 집체훈련과 재난대책본부 지휘소 훈련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곽은 날씨와 산재한 업무 와중에도 전사 직원들은 안내자의 지시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훈련을 마무리하였다. ⓧ

완벽한 “안전사업장”을 위해 아산성우하이텍 안전결의대회

“하나, 우리는 자신의 안전이 가정의 행복임을 명심하고 나부터 솔선수범한다.”

10월 24일, 쌀쌀한 아침 바람이 걷힐 무렵 아산성우하이텍 앞 공터가 열기로 가득 찼다.

아산성우하이텍 전 임직원들이 업무도 놓은 채 모였다.

<무재해 달성을 위한 아산성우하이텍 안전결의대회>를 앞둔, 결의에 찬 성우인들의 눈빛이 빛났다.



아산성우하이텍은 안전결의대회에 앞서 22, 23일 양일 간 “아산성우하이텍 안전진단”을 진행하였다. 한국안전 기술지원단의 지원을 받아서 본사의 진영철 차장, 강승엽 과장(총무안전환경팀)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이번 안전진단은 기계, 화공, 전기, 작업환경, 보건, 일반안전 등 전 분야에 걸쳐 진행되었다. 정밀하고 꼼꼼한 안전진단 결과, 몇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다. 평소 사용이 빈번하지 않아 미처 살피지 못했던 방호장치를 진단자들이 발견했다. 관계자들의 표정이 시무룩해진다.

“안전에 있어 완벽함은 없습니다. 완벽하다고 믿는 순간, 교만해집니다. 교만은 곧 큰 사고로 이어지죠. 작은 지적사항이라도 나와야 경계하는 마음이 생기고, 안전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아산성우하이텍은 전반적으로 현장 개선 노력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았다. 가라쿠리 개선으로 작업자들의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한 사례, 손가락 협착 방지용 양수 조작식 버튼 및 치공구 제작 사례 등이 돋보였다. 훌륭한 평가를 받은 사례는 국내외 전 사업장에 알려져 건강하고 안전한 성우하이테이 되는 데 보탬이 될 예정이다.





이광운 차장(아산생산기술팀), 맹서영 반장(아산 조립4반), 이상복 대표(우정테크)의 우렁찬 “선서” 소리와 함께 전 임직원이 안전결의문을 낭독한다.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안전문화 정착에 적극 참여하고, 불안전한 상태를 사전에 제거한다는, 누구나 익히 들어 알고 있지만 누구도 매순간 새기지 않았던 결의문을 통해 다시 한 번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는 다짐을 해본다.

이어서 도종복 부사장(인사정보사업본부장)이 선서자들에게 무재해기(旗)를 전달하는 의식을 가졌다. 선서자들이 무재해기를 건네받고 있는 힘껏 하늘을 향해 흔든다. 펄럭이는 무재해기를 보며 재해 없는 아산성우하이텍을 만들겠다는 결의가 참석자들의 마음에 또 한 번 새겨졌다.

마지막으로 정재호 전무(아산사업본부)가 이번 안전결의대회 기념사를 하였다. 정 전무는 오늘의 자리가 단발성의, 보여주기 행사가 되지 않도록 나와 내 가족의 행복을 위하여 안전에 관하여는 기본과 원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했다.

“불신과 주의는 안전의 부모이다.” - 벤자민 프랭클린





성우하이텍 캠퍼스 리크루팅

‘글로벌 성우하이텍’의 새 얼굴을 찾아서

가을은 바야흐로 신입사원 채용의 계절. 2018년 신입사원을 꿈꾸는 미래 성우인들을 위해 선배들이 직접 캠퍼스를 찾았다.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부산 시내 3개 대학(부산대학교, 동아대학교, 부경대학교)에서 진행된 캠퍼스 리크루팅 행사는 글로벌 자동차 부품회사 성우하이텍의 역량을 소개하고 입사 노하우를 전한 기회였다.



열정 가득, 의욕 충만

냉각된 고용시장 속에서도 130여 명의 신입사원 채용을 예정한 성우하이텍의 리크루팅 현장은 성우인을 꿈꾸는 학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부경대학교 인재개발원 담당자는 “여느 취업 관련 행사보다 사전 문의도 많았고 참가한 학생들도 많았다”라고 성우하이텍 캠퍼스 리크루팅 행사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었다.

이날 행사는 성우하이텍의 역사부터 글로벌 자동차 부품회사로 성장한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미래 혁신 기술에 대해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세계무대로 진출한 글로벌 성우하이텍의 역량에 대해 알아가는 학생들의 모습은 자못 진지하였다. 학생들은 특히 해외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점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어진 Q&A 시간에는 취업 절차, 인사 제도, 복지와 관련한 다방면의 정보를 전달하였다. Q&A 시간을 끝으로 공식 행사가 마무리 된 이후에는 1:1 직무 상담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상담 시간이 주어졌다. 담당자들은 긴 줄을 마다 않고 기다리는 학생들의 질문 하나하나에 최대한 성심껏 답을 해주었다.

이날 리크루팅에 참석한 많은 참가자들이 미래 성우인을 꿈꾸며 의욕 충만하고 열정 가득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들이 만들어갈 좀 더 열정 넘치는 성우하이텍의 미래를 기대해본다.

Tip.
광탈 확정!
자기소개서에
이런 표현은
넣어둬, 넣어둬~



✓ 상투적인 표현은 놉!!!

지원자 A: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듯이…
NG! 흔한 명언, 지루하고 진부한 표현은 자소서 글자 수 채우기로 보일 수 있다. 자신만의 언어, 간결한 문장으로 구체적으로 쓰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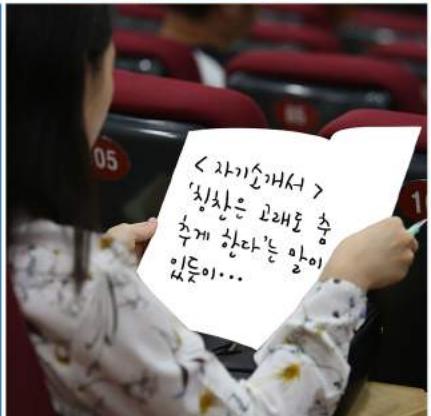
✓ 직무경험은 자세히

지원자 B: 관련 일을 하며 남들보다 열심히 노력했고 성과를 냈습니다.
NG! 인사담당자들은 직무경험을 자세히 서술한 자기소개서에 높은 점수를 준다. 이때에는 두루뭉술한 표현보다는 구체적 사례와 수치로 신뢰감을 높인다.



✓ 소제목을 활용하자

지원자 C: 제 이야기 쓰기에도 글자 수가 모자라서…
NG! 소제목이 필수는 아니지만, 있으면 인사담당자의 수고를 훨씬 덜게 된다. 단, 내용과 관계없거나 지나친 과장, 추상적 표현은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 '귀사'가 아니다

지원자 D: 제가 귀사의 미래를 책임질 역량 있는 인재임을 확신합니다.
NG! 적어도 지원하는 회사의 이름 정도는 제대로 기재할 것. '귀사' 등의 표현은 자소서 돌려쓰기의 증거가 될 뿐이다.

내 마음속 최애♥ 순간 포착, 그때를 생각하면 심·쿵·해~

사랑하는 아이의 얼굴 가득 퍼지는 환한 웃음. 지난봄 절정에 이르렀던
화려한 개화의 순간들. 추석을 맞아 온가족이 차례를 지내는 훈훈한 모습.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 설레게 하는, 일상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잊게 해주는 순간 포착,
성우 가족의 마음속 최애♥ 만나볼까요?



이영민 기사(물류1반) #퇴근길
#밝게 비춰주는 #활기찬 아침노을



김형주 연구원(경량설계팀) #아버지환갑기념 #시선강탈 가족티 #첫 가족여행



흘러넘치는 으리!
흘러넘치는 으리!



소정현 대리(품질보증팀) #상남자 #의리 폭발 #영덕대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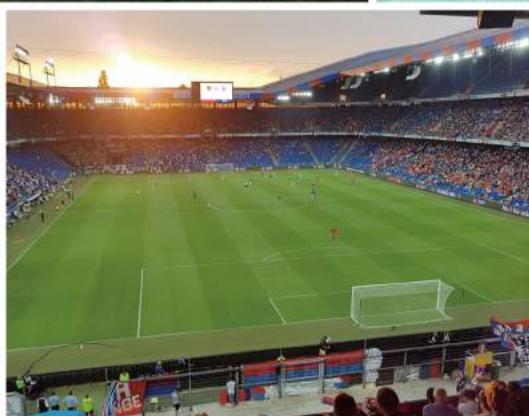
이창수 대리(보전1팀)
#김해가야테마파크 #추석연휴 #또또기와 함께



박주일 부장(생산기술1팀)
#내가 지켜줄게
#두더운 우애



박영민 과장(PI팀) #가을 놀이 #낙엽비
#우리에게 가을이 오다



신지훈 사원(공법기획팀)
#스위스 FC바젤 vs. 그리스 PAOK #챔스 직관



정창영 부장(개발2팀)
#Übung macht den Meister #연습이 대가를 만든다



이호준 연구원(융합설계팀)
#한계령 휴게소 #아내와 함께 #오토바이 일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 설레게 하는,
일상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잊게 해주는 순간 포착



유근혁 연구원(융합설계팀)
#태국 파타야 #하드락 호텔 #이거슨 파라다이스



김원희 과장(아산생산관리팀)
#동기모임 #성과포상 #육회는 덤



권성희 대리(인사노무팀)
#여름 초입에서 #안압지야경 #밤마실



성승근 사원(원가2팀) #카자흐스탄 #해발3,000m #청춘의 패기



최용혁 차장(중경성우) #기장 앞바다 #지중해? #카푸치노 구름



신용석 조장(금형반) #어부바 놀이 #도
레미파 #막둥이가 자라면…



신정호 대리(금형설계팀) #2015♡ #홍콩 #디즈니랜드 회전목마

최배승 과장(금형설계팀) #꼭 그렇게
다 내려야 #시원하나 #해바라기



주종문 과장(북경성우)
#구름 위의 선사인 #따스한 햇살 #잠온다



김민수 대리(통합구매팀)
#아버지 생신 #선물은 현금이 최고



양진철 과장(아산생산기술팀)
#여우와 토끼의 연날리기 #가을하늘 #높이높이



남기성 책임연구원(선행기술팀)
#평창동계올림픽 #용평리조트 #레인보우 상단

※ 당첨을 축하드립니다.(커피교환권 지급)

김형주 연구원(경량설계팀) / 남기성 책임연구원(선행기술팀) / 신지훈 사원
(공법기획팀) / 신용석 조장(금형반) / 소정현 대리(품질보증팀) ☺

그대를 향한 마음 한 점 한 점 사랑이 되어

앙리 마르탱

사랑에 빠진 연인의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부부가 되어 한평생을 함께하며 함께 늙어가는 것은 모든 연인들의 바람일 것이다.

50년을 한 여인만 사랑하며 그녀를 모델로 많은 작품을 남긴

화가 앙리 마르탱과 그의 아내 마리처럼.



1

1. 연인
The Lovers
패널에 오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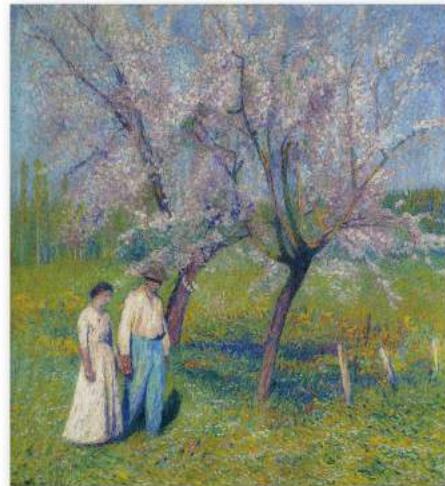
2. 사과나무 아래에서 산책하는 신부
Brides walk under the apple trees
캔버스에 오일

3. 부부가 있는 풍경
Landscape with Couple
캔버스에 오일

(전략)

이 세상의 어느 한 계절 화사히 피었다
시들면 자취 없는 사랑 말고
저무는 들녘일수록 더욱 은은히 아름다운
엑새풀처럼 늙어갈 순 없을까
바람 많은 가을 강가에 서로 어깨를 기댄 채

우리 서로 물이 되어 흐른다면
바위를 깎거나 갯벌 허무는 밀물 썰물보다는
물오리 떼 쉬어가는 저녁 강물이었음 좋겠어
이렇게 손을 잡고 한세상을 흐르는 동안
갈대가 하늘로 크고 먼 바다에 이르는 강물이었음 좋겠어
- 도종환 <내가 사랑하는 당신은> 중



2

앙리 마르탱(Henri Jean Guillaum Martin, 1860~1943)은 프랑스의 신인상주의 화가로, 그 대표적인 화법인 점묘법을 사용한 많은 작품을 남겼다. <연인>, <사과나무 아래에서 산책하는 신부>, <부부가 있는 풍경>은 대중에게 가장 익숙한 그의 대표작들로, 이들 작품들에는 공통적으로 '사랑하는 두 남녀'가 등장한다. 때로는 손을 맞잡고 같은 길을 걷는 연인의 모습으로, 때로는 순수한 사랑을 맹세하는 순백의 부부로. 신인상주의의 점묘법을 사용하여 화려한 색채로 그려낸 연인들을 보노라면 밝은 가을 별 아래 서 있는 듯 따뜻함이 전해진다.

연인 및 부부를 소재로 한 이 작품들은 실제로 50년을 해로한 마르탱의 아내, 마리를 모델로 그려졌다.

3



당대 예술가들이 여러 여인들과 교류하며
예술적 영감을 나누었던 것과 달리 마르탱은
한평생 부인 마리만 사랑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마리 역시 바느질 등으로 무명 화가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준 것은 물론 작품을 위한 영감의
대상이 되어주었다.

한평생 한 여인만을 사랑했던 화가의 순애보와
그를 향한 부인의 굳은 신뢰가 담겨 있는
이들 작품을 보면 지금 곁에 있는 '그 사람'을
되돌아보는 것은 어떨는지.

마음의 소리를 들을 때 생기는 일

누구나 마음속에 별 하나쯤은 품고 산다.
어떤 사람에게 그것은 가족이고 친구이며
꿈이고, 신념이자 신앙이다. 그런데 살다
보면 한 번쯤 가슴속 깊이 간직한 그 별이
추락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가장 신뢰하던 가족으로부터 받은 상처,
믿었던 친구의 배신, 그토록 원하던
꿈에 가닿을 수 없게 만드는 현실, 자꾸만
자신의 신념과 동떨어진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 믿었던 신앙 안에서조차
사람은 단절을 경험하고 실망한다.



욕구가 좌절된 순간에 올라오는 외로움, 불안, 두려움, 근심, 우울, 의심 등 불편한 감정은 가까운 주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스스로도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나쁜 에너지로 가득하다.



방향을 잃은 사람들

삶의 의미였던 마음의 별이 떨어지면 누구나 방향을 잃고 어디로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막막해진다. 아니, 걸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당장 하루를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문제가 된다. ‘나는 누구이며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인생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은 어김없이 이 질문과 만나게 된다. 더 이상 이전의 방식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선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좋아하는 것을 알면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마음성장학교를 통해 만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고 질문이다. 나이에 따라 진로, 연애와 결혼, 자녀문제, 인간관계, 직장 안에서의 성장, 경제적 어려움과 자기계발 등 다양한 삶의 이슈들이 있다. 어느 세대나 고민 없는 세대가 없다. 우리는 살아온 시간만큼 인생이 아무 일 없이 흘러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더 깊이 알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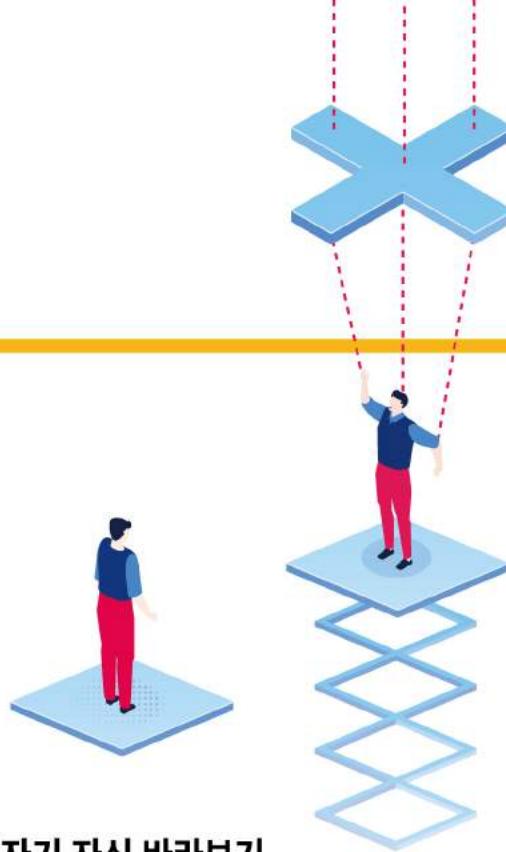
오랜 시간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외면한 채 살아온 사람들은 절망을 경험하는 순간에도 ‘괜찮아. 잘 될 거야’ ‘아자, 다시 해보는 거야’ 등 자기 최면의 말을 하며 올라오는 감정을 눌러버리고 느끼려 하지 않는다. 하지만 감정에는 에너지가 있다. 특히 욕구가 좌절된 순간에 올라오는 외로움, 불안, 두려움, 근심, 우울, 의심 등 불편한 감정은 가까운 주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스스로도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나쁜 에너지로 가득하다. 이 감정들은 스스로 용기를 갖고 느끼기 전에는 사라지지 않는다.



가면 뒤에 갇힌 감정

가끔 자기 자신이 두렵다는 이들을 만난다.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사람, 지나치게 친절하고
필요 이상으로 많이 웃으며 굽실거리는 몸짓을
하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다. 이들과 조금 깊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지난 시간 돌보지 못했던
감정을 쏟아내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한다. 오랜
시간 자신의 실제 감정보다 사람들에게 좋은 느낌을
전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으로 살았다. 그러다
보니 타인에게 원만한 사람으로 보일만한 감정만
표현하며 산다. 자연스럽지 못하고 인위적인 하나님의
감정을 선택해서 가면처럼 쓰고 살다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감정은 점점 굳어진다. 열핏 보면
친절한 듯하지만 왠지 모를 거리감이 느껴지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다.

인간관계 안에서 진실한 감정을 주고받을 때 보다
친밀한 관계까지 발전하게 된다. 자신의 불편한
감정을 온전히 느끼고 돌보지 못하는 사람이
타인의 감정을 느끼고 공감하기는 어렵다. 더군다나
스스로를 속이는 자기기만에 빠져 있기에 관계
속에서 사랑과 신뢰를 경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자신을 믿지 못하기에 다른 이들의 친절과
사랑도 온전히 믿지 못한다. 믿는 척, 친절한 척을
할 수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공허하고 외롭고
우울한 감정 속에서 급기야 자신이 하찮은 존재라는
절망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



자기 자신 바라보기

그러나 희망은 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누구와도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느끼는 그 순간,
마음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어찌할 수 없는
절망의 순간 '나는 누구이며 어디에 있는가?'라고
내면에서 들려오는 물음에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느끼고 답하기 시작할 때 새로운 길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무엇을 할 때 기쁜가?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는가?

인간은 누구나 자기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으며,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통제할 수 있다.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가 하는 것은
타인이나 외부 상황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선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선택은 그것이
좋은 것인 나쁜 것인 혹은 효율적이거나
비효율적인 것인거나 즐거운 것, 고통스러운 것,



글 | 김은미 심리코칭 전문가이자 마음성장학교 대표. '삶의 가치를 되찾는 8주 코칭'을 비롯해 '엄마 마음성장학교', '그림책 읽는 어른', '리더를 위한 마음성장학교' 등 자기성찰과 성장을 돋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진행하고 있다. 기업인, 부모, 교사, 종교인, 공무원 등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강연, 워크숍 등을 진행하며 참가자들의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왔다. 저서로는 「마음성장학교」, 「마음이 머무는 페이지를 만났습니다」, 「생존독서」 등이 있다. 홈페이지: www.마음성장학교.com



정상 혹은 비정상적인 것 모두가 우리들 각자 내면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선택이다. 성숙한 삶과 건강한 관계는 각 개인이 스스로 자신에게 가장 좋은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책임을 질 수 있을 때 가능하다. 이것은 현실치료와 선택이론을 개발한 미국의 정신과 의사 윌리엄 글라서(William Glasser, 1925~2013) 박사의 주장이다. 그는 인간의 욕구를 다섯 가지로 분류 한다. 생존의 욕구, 사랑과 소속의 욕구, 힘과 성취의 욕구, 자유의 욕구, 즐거움의 욕구. 이 다섯 가지 욕구는 모두 중요하다. 누구나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다섯 가지 욕구가 충족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욕구가 다르다.

만약 확실한 이유도 없이 우울하거나 화가 자꾸 나고 감정 조절이 어렵다고 느낀다면 지금 삶에서 충족시키지 못하는 욕구가 무엇인지 가만히 멈춰서 느껴보길 바란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부모가 자신의 아이를 대하듯 자신에게 필요한 공간과 시간을 허락하고 돌봐줄 것을 권한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채워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첫 걸음이다.

당신이 행복하지 않다면 누구도 행복하지 않다. 당신이 우울하고 힘들어하면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는다.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면 작은 노트를 한 권 준비해서 떠오를 때마다 적어볼 것을 권한다. 무엇이든 다 적어보자. 그리고 하나씩 해보자. 누구의 도움 없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자. 그리고 그 때마다 당신의 감정을 느껴보면 알 수 있다. 정말 원하는 것이라면 감정이 말해줄 것이다. 나는 지금 행복하다고.

사랑하는 이에게 보내는 절절한 고백, 예술이 되다

예술가들의 뮤즈

갈라, 루 살로메, 불멸의 연인. 이 이름들을 들어본 적 있는지.
이들은 모두 걸출한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준 뮤즈¹⁾들이다.
예술가들의 심장을 뛰게 하고, 영감을 불어넣었으며,
예술작품의 모델이 된 뮤즈들.
살바도르 달리, 릴케, 그리고 베토벤이 남긴 명작과
그 모델이 된 뮤즈의 이야기를 만나보자.

*이미지 출처_구글 이미지



1) 춤과 노래·음악·연극·문학에 능하고, 시인과 예술가들에게 영감과 재능을 불어넣는 그리스 신화 속 예술과 학문의 여신이다. 후에 시인, 무용가, 음악가, 작가들에게 영감을 일으키는 존재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Für Elise

www.franz-dorfer.com

play-clarinet

L. v. Beethoven



Salvador Dali & Gala Dali



괴짜 천재를 스타 화가로 달리&갈라

스페인이 낳은 천재, 20세기 최고의 초현실주의 화가, 카이저수염²⁾의 괴짜 천재. 천재 화가 살바도르 달리(Salvador Dali, 1904~1989)가 지금과 같은 명성을 얻은 데에는 아내 갈라(Gala Dali, 1894~1982)의 영향이 절대적이었다. 스물다섯 살의 달리가 갈라와 만날 당시 그녀는 10살 연상에다 남편도 있었다. 그러나 현실의 장벽은 두 천재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자기 과시적이며 야심만만했던 두 사람은 한눈에 서로를 알아보았고, 갈라의 남편이었던 프랑스 시인 '폴 엘뤼아르'의 사후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다.

파리에서 피카소, 코코 샤넬, 르네 마그리트 등 예술가들과 교류하던 달리는 1940년 갈라와 함께 미국에 진출, 뉴욕근대미술관에서 첫 회고전을 열며 뉴욕 사교계에 데뷔하였다. 지나친 자기애와 기행으로 무시당하기 일쑤이던 괴짜가 예술가로서 인정받는 순간이었다. 갈라의 지원 아래 달리는 영화, 연극, 패션, 광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루 활동하며 20세기 예술계 전반에 족적을 남겼다. 자신이 만든 환상세계에만 머물던 천재를 대중 앞으로 끌어내어 스타 화가로서 성공시킨 갈라는 평생을 사랑하는 아내이자, 에이전트이자, 어머니처

럼 달리를 보살피는 절대적 존재 그 자체였다. 갈라에 대한 사랑은 작품 곳곳에 남아 있다. 달리는 갈라와 만난 이후 그림 속 모든 여성을 갈라를 모델로 그렸으며 1930년대 초부터 그린 작품에 '갈라와 살바도르 달리'라고 서명했다.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달리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내 그림들은 거의 그녀의 피로 그려진 것인니까요."

• 관련 영화_

리틀 애쉬: 달리가 사랑한 그림(2008)



2) 독일 황제 빌헬름 2세의 수염 모양에서 유래한 양쪽 끝이 위로 굽어 올라간 콧수염. 달리의 트레이드마크로 여겨진다.

Ludwig van Beethoven & immortal beloved



세 통의 편지와 <엘리제를 위하여> 베토벤&불멸의 여인

대중에게 가장 익숙한 클래식 곡이라 하면 아마 적지 않은 이들이 베토벤(Ludwig van Beethoven, 1770~1827)의 피아노곡 <엘리제를 위하여>를 꼽을 것이다. 자동차 후진음(?)으로, 장난감 오르골 음악으로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테니까. 곡 자체의 인기만큼이나 '엘리제'가 누구일까에 대한 관심 또한 높다. 거칠고 과팍한 성격이었다는 베토벤이 이렇게 아름다운 선율을 선물한 그 여인이 과연 누구였을까. 여러 가지 가설 중 지금은 소실된 자필 악보를 세상에 내놓은 여인 '테레제 말파티(Therese Malfatti)'라는 설과 베토벤의 오페라 <피델리오>에서 주인공인 플로레스탄 역을 맡았던 조세프 뢰켈의 여동생 '엘리자베스 뢰켈(Elisabeth Roeckel)'이라는 설이 가장 설득력을 얻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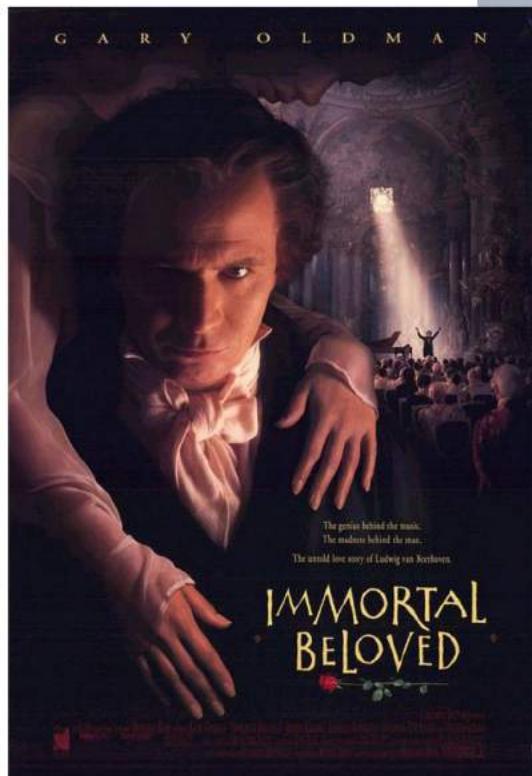
엘리제의 정체에 대한 관심은 베토벤 사후 그의 책상 서랍에서 발견된 '부치지 않은 편지' 세 통에까지 이어졌다. 받는 이가 그저 '불멸의 연인'으로 표현된 이 편지는 여느 러브레터 못지않게 절절한 사랑으로 가득하다. '불멸의 연인'과 베토벤의 이야기는 1994년 동명의 영화로 제작되어 화제를 모았다. 제 3의 여인들을 불멸의 여인 후보로 내세운 감독은 작가적 상상력을 더하여 여인의 정체를 밝혀내는 과정을 영화로 그려냈다. 베토벤의 명곡, 베토벤으로 분한 게리 올드만의 명연기를 볼 수 있는 것만으로 추천할 만한 작품이다.

엘리제가 누구인지, 불멸의 여인이 누구인지 는 어쩌면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닐지도 모르겠다.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에 녹아든 절절한 사랑이 여전히 심금을 울리고 있지 않은가.

"침대에 누워 있는 동안에도 나의 마음은 그대, 불멸의 연인(imortal beloved)에게로 향하고 있다오. 신이시여, 나는 어째서 그토록 사랑하는 이와 떨어져 있어야 한단 말이오."

-7월 7일 아침 편지 중

• 관련 영화_불멸의 연인(1994)





Rainer Maria Rilke & Lou Andreas-Salomé



뮤즈의 탄생 라이너 마리아 릴케&루 살로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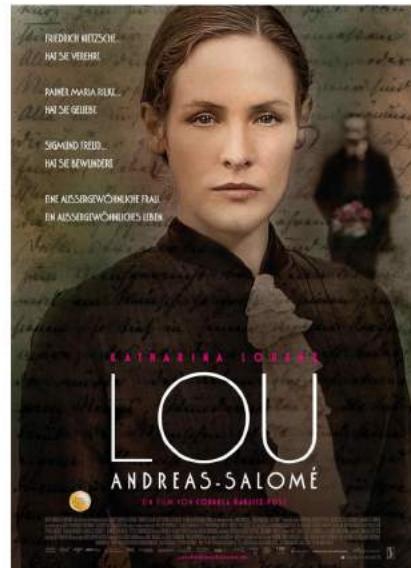
어머님, 나는 별 하나에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 봅니다(중략)… 강아지, 토끼, 비둘기, 노
새, 노루, 프란시스잼,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
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윤동주 <별 헤는 밤> 중

윤동주의 <별 헤는 밤> 속 한 구절이다. 시구
에서 언급할 만큼 윤동주의 시 세계에 영향을
끼친 라이너 마리아 릴케(Rainer Maria Rilke,
1875~1926)는 순수한 영혼을 노래한 서정시
인으로 알려져 있다. 릴케 역시 당대 예술가
및 학자들과 관계를 맺으며 그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었던 루 살로메(Lou Andreas-Salomé,
1861~1937)의 영향으로 시 세계를 꽂피울 수
있었다고 평가받는다.

그 스스로도 작가이자 정신분석학자였던 루
살로메는 무명의 릴케와 만날 당시 이미 자신의
작품으로 이름을 떨치던 유명 인사였다. 두
사람의 만남 또한 루 살로메의 애세이에 감명
받은 릴케가 그녀에게 쓴 편지로부터 시작되
었다고 전해진다. 미성숙하고 완성도가 떨어
졌던 릴케의 시 세계는 루 살로메를 만나 원숙
기에 접어든다. 루 살로메는 릴케와 함께 여행
을 떠나 견문을 넓히고, 니체 등 철학자를 소
개시켜주어 정신세계를 확장하였으며, 러시
아문학을 가르쳐주어 예술적 깊이를 더해주
었다. 이즈음 릴케는 루 살로메의 조언에 따라
프랑스식 이름이었던 '르네(Rene)'를 독일식

이름인 '라이너(Rainer)'로 바꾸기도 하였다.
그녀에 대한 애정과 믿음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자유연애, 두 남자와의 동시 동거, 성생활 없는 결혼생활 등 루 살로메의 행보는 당시로서도 파격적이었다. 지적으로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상대와 육체적 애정을 나눌 상대를 철저히 구분했던 그녀는 이처럼 기준 질서에 얹매지 않고 주도적으로 인생을 개척하였다. 바로 그런 이유로 니체, 릴케, 프로이트 등 당대 유럽 최고의 지성인들을 매혹시키며 그들과 교감하고 '뮤즈'의 대표 격으로 남을 수 있지 않았을까.

• 관련 영화_루 살로메(2016)



노구현 과장(창주 성우) 가족

세 배의 사랑, 행복, 기쁨

올해 3월, 창주 성우 노구현 과장에게
최고의 선물이 찾아왔다.
결혼 후 3년. 긴 기다림 끝에 드디어 만나게 된
첫아이는 하나도 둘도 아닌 셋.
세 배의 사랑과 기쁨과 행복을 준다는
노구현 과장의 삼둥이 육아기를 따라가 보자.

긴 기다림만큼 큰 기쁨

노구현 과장이 부인인 정지선 씨와 백년가약을 맺은 것은 2016년 1월. 주재원 생활 4개월 차의 일이다. 돌만으로 행복한 시간이었지만 좀처럼 찾아오지 않는 첫아이에 대한 갈증이 컸다.

“삼둥이라니 처음에는 얼떨떨했습니다. 삼둥이 임신은 위험이 따르는 일이라, 아이들이 9개월간 배 속에서 무사히 자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때, 아이 셋을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다짐해준 당찬 아내에게 많이 고맙습니다.”

아이들은 예정일보다 7주 일찍 태어났다. 세쌍둥이의 경우 흔한 일이라지만 겨우 1.7~8킬로그램 남짓한 미숙아로 태어나 5주간 인큐베이터에서 자라야 하는 아이들을 보며 마음고생도 적지 않았다.

“자가 호흡을 못해서 호흡기를 달고 있는 애들과 첫 대면했어요. 첫째 하린이(딸), 둘째 하율이(아들), 막내 하윤이(딸)까지. 눈도 못 뜯 애들이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었죠. 그 모습이 너무 작고 약해 보여서 얼마나 짠하던지….”



개성도 제 각각, 삼둥이

그새 아이들은 건강하게 쑥쑥 자라 이제는 미숙아로 태어났던 것을 잊을 정도다. 한국에서 몸조리를 하느라 떨어져 지낸 것이 무색하게 아빠를 잘 따른다. 한 날 한 시에 태어났어도 개성이 제각각이라 아이들과 시간 보내는 재미에 품 빠졌다.

“하린이는 첫째라 그런지 힘도 가장 세고 에너지 넘쳐요. 활동적이어서 뒤집기든 뛰든 제일 빠르고요. 하율이는 워낙 순하고 잘 먹어서 셋 중 가장 눈에 띕니다. 하윤이는 제일 눈치가 빠르고 영특해요. 질투도 많고요.”

이렇듯 개성 넘치는 아이들을 동시에 돌보는 것 또한 마냥 쉬운 일은 아닐 터. 노 과장이 전하는 현실 육아 현장은 어떤 모습일까?

“그야말로 정신을 쑥 빼놓죠. 셋이 배 속에 비좁게 있어서 그런지 몸싸움도 있고, 막내 하윤이는 질투가 좀 많아서 누구에게든 안겨 있으려고 해요. 한 녀석이 울면 또 다른 녀석이 따라 울고, 돌아가면서 계속 안아줘야 하니 쉴 틈이 없어요. 퇴근 후에 잠깐 보는데도 쉽지 않더라고요. ‘독박’ 육아 중인 아내에게 많이 미안하고 또 고마울 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세 사람으로

중국 주재원 생활 4년 차. 노구현 과장에게는 아마 평생 잊지 못할 4년이 될 것이다.

“주재원 생활 중에 결혼도 하고, 선물 같은 아이들도 태어났으니 특별할 수밖에 없죠. 제가 77년생으로 성우와 나이가 같은데, 성우 역사상 삼둥이가 태어난 것은 처음이라니 새삼 더 특별한 인연인 것 같습니다.”

11월 초, 삼둥이와 아내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갔다. 중국보다 따뜻하고 저갓집 식구 등 육아를 도와줄 분들이 계신 한국에서 겨울을 보내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판단에서였다. 당분간은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생활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마지막으로 삼둥이 하린이·하율이·하윤이에게 바람을 전하는 노구현 과장의 말 속에는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 넘쳤다.

“아빠가 정말 많이 사랑해. 벌써부터 투덜거리기 시작한 것 같은데 서로서로 사랑하면서 아껴줬으면 좋겠어. 서로에게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형제로 평생 행복하자.”



평생 만나고 싶은 ‘내 사람’

신차품질 1, 2팀 임지은·진수민 사원

직장생활 중에 평생 이어갈 인연을
만나게 될 확률은 얼마나 될까.

하루 최소 8시간, 일주일 중 5일.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동료와 돈독한 사이가 된다면

직장생활은 훨씬 즐거워질 것이다.

3년차 입사 동기인 신차품질 1, 2팀

임지은·진수민 사원이 입 모아 말
하듯이.



동병상련 입사 동기

2016년 나란히 성우인이 된 임지은·진수민 사원은 스무 명 남짓한 여자 동기 중에
서도 유달리 돈독하다. 회사 밖에서는 직함보다 언니라는 호칭과 이름이 더 편해진
두 사람. 신차품질 1, 2팀의 유일한 여직원이라는 점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신차품질 1, 2팀 업무가 비슷하다 보니 서로에게 많은 도움이 돼요. 업무가 막히
면 물기도 하고 제가 자리를 비울 때 지은이에게 부탁할 수도 있고요.”

낯선 업무, 남자사원들과는 나눌 수 없는 고민을 나누고 마음을 털어놓으며 지내
는 동안 친자매처럼 가까워졌다. 이런 두 사람의 관계는 신차품질 1, 2팀 내에서도
자자하다. 임지은 사원이 자리를 비우면 자연히 진수민 사원을 찾게 되는 식이다.

“대학을 갓 졸업하고 입사했을 때 모든 것에 어리바리했었어요. 그때 인턴 경험도
있고 해외 생활도 해본 수민 언니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언니 성격이 워낙 꼼
꼼해서 절 잘 이끌어주거든요. 이제는 출근 때 언니 차만 봐도 든든해요.”



쿵짝 잘 맞는 단짝

퇴근 후나 주말에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은 이제 익숙한 일이다. 대화를 하고 맛집을 찾아다니는 것부터 나란히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고 악기 연주를 배우러 다니는 일까지, 둘이서 함께하는 일의 스펙트럼도 넓다. 지난 추석 즈음에는 콘서트도 다녀왔다. 진수민 사원이 이벤트에 당첨되었는데 남자친구를 두고도 고민 없이 임지은 사원에게 함께 가자고 청했다. 이렇다 보니 두 사람의 남자친구들에게 질투를 사기도 한다.

“지금은 남자친구들도 함께 만날 만큼 아주 가까워졌어요. 성격이나 취향이 맞아서 딱히 부딪힐 일은 없어요. 오히려 좋아하는 게 비슷하다 보니 더 쉽게 친해진 것 같고요. 물론 업무 파트가 달랐다면 아무래도 이만큼 친하게 지내지는 못했을 거예요.”

단순히 입사 동기라는 이유로 이렇게 깊이 친해지지는 못했을 터. 비슷한 음식 취향과 성격에 더해 뭘 하든 쿵짝이 잘 맞는다고 입을 모았다. 함께하는 취미를 가지면서 이야기거리도 생기고 업무 스트레스도 잊게 되는 등 서로에게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아가고 있다.



소중한 인연을 평~생

두 사람이 함께하고 싶은 일 리스트는 여전히 빽빽하다. 가을이 다 가기 전에 소문난 브런치 카페를 찾아가기로 했고 내년쯤 라オス로 여행도 떠나고 싶다. 서로에게 좋은 여행친구가 되어줄 거라는 믿음이 있어 벌써부터 잔뜩 기대 중이다.

두 사람에게 서로는 어떤 의미일까. 쑥스러운 웃음 끝에 건넨 말에 듣는 사람마저 기분이 좋아진다.

“지은이는 워낙 많은 분들이 칭찬하세요. 늘 웃는 얼굴로 다른 직원들을 대하고 성격도 워낙 좋거든요. 지은이 칭찬을 들으면 제가 다 뿌듯해요. 이제는 정말 친동생 같아서 결혼하는 것도, 아기 낳는 것도 보고 싶어요. 평생 함께할 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언니가 워낙 잘 받아줘서 늘 고마워요. 업무적인 얘기뿐만 아니라 인생 얘기, 남자친구 얘기도 할 수 있고, 고민 상담을 하면 피드백도 잘해주고요. 언니 말처럼 단순한 동료가 아니라 친구처럼 자매처럼 오랫동안 잘 지내고 싶어요.”

디저트 카페

소중한 사람과 달콤한 행복을 주문해요~

디저트를 적극적으로 찾는 '디저트노마드족'¹⁾은 트렌드를 넘어 문화가 되었다.

디저트카페는 소중한 사람과 함께 달콤한 맛과 향에 취할 수 있는 공간이다.

작은 위안 한 줌과 행복 한 조각이 세트메뉴로 준비되어 있다.



지은, 수민이 선택한 달달한 왕자님

홍차왕자

쿵짝이 잘 맞는 단짝 임지은, 진수민 사원의 선택은 회사에서 가까운 '홍차왕자'다. 두 사람이 함께하는 일 리스트에는 디저트카페 방문도 올라 있다.

오늘은 입사 동기인 인사노무팀 이가영 사원도 함께. 숲속에 자리한 카페라 차 없이는 방문이 쉽지 않다. 다행히 두 사람 다 든든한 오너드라이버. 꼬불꼬불 산길을 잘도 달린다.

별장 같은 카페로 들어서니 유럽풍의 유니크한 실내 인테리어와 빵을 굽는 고소한 향에 기분이 좋아진다. 눈 달는 곳 구석구석이 포토존이다. 주문은 뒷전이고 인증샷 삼매경이 된다. 카페의 이름으로 알 수 있듯,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는 홍차와 밀크티. 그렇다고 커피가 처지지는 않는다. 예쁜 다기(茶器)에 나오는 홍차와 얼그레이, 아쌈, 블랙퍼스트 등 차 종류별로 만들어내는 밀크티 맛이 그만이다. 얼음차를 시키면 자체 제작한 친환경 컵에 나온다.

디저트 메뉴 중 단연 인기는 스콘류. 얼그레이 향이 깊이 배 얼그레이스콘, 새콤달콤한 크랜베리가 톡톡 씹히는 크랜베리스콘, 감칠맛이 풍부한 치즈바질스콘 등 종류도 다양하다.



그 외 초코크루아상, 치즈타르트 등 모든 디저트 메뉴는
직접 구우니 빵 나오는 시간을 알아두면 좋을 듯 하다.
갖가지 디저트를 모두 맛보고 싶지만 한 번에 다
먹어볼 수 없어 아쉽다. 종류별로 밀크티를 주문하고
스콘과 치즈타르트로 달콤한 대화 꽃을 피운다. 그런데
바리스타께서 불쑥 내미시는 크루아상! 와우~ 서비스란다!
손님의 마음을 읽는 바리스타인가! 덕분에 즐거움이
더해진다.

2층은 탁 트인 전망이 그만인 곳. 따뜻한 별이 드는 낮에도,
환상 같은 야경이 펼쳐지는 밤에도 좋다. 단체석이 있어
무알콜 디저트 회식도 가능하리라~ 2층은 독특하게도
야외와 연결된다. 숲속이라 그런지 산새들과 고양이들도
보인다. 카페 안팎을 걸어 다니며 흔들의자도 타고 다양한
소품들을 보는 재미도 쓸쓸하다. 식후 디저트를 즐기는
카페로 이상적인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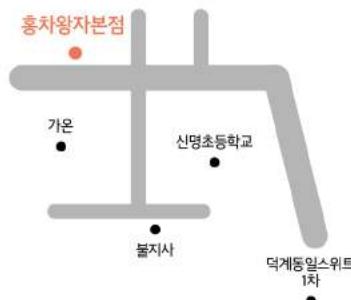
영업시간

11:00am~10:00pm

(화요일 휴무)

경남 양산시 신명3길 144

T. 055-388-6267



1) 예쁘고 맛있는 디저트를 먹기
위해 거리나 가격에 상관없이
여러 곳을 돌아다니는 사람. 또는
그런 무리를 일컫는 신조어.



디저트공방

달토당

마카롱은 인기 디저트다. 특유의 달달함이 진한 차와 잘 어울린다. 전문점도 많지만 '달토당'의 마카롱은 다르다. '디저트공방'이라 내세우는 달토당은 달토끼의 작업공간을 뜻한단다. 개금시장 한쪽 골목에서 겨우 찾을 수 있는 아담한 핑크색 가게를 찾으니 마치 동화 속 이상한 나라의 달토끼를 만날 것만 같다. 열심히 떡을 짚는 토끼를 상상하며 들어선 가게에는 토끼 대신 토끼처럼 어여쁜 주인장 '달언니'가 반긴다.

마카롱을 보면 자연히 동공지진이 일어난다. 손으로 하나하나 그림을 그려 만든 한국화 마카롱이라니! 역시 카페보다는 공방이라 해야겠다. 직접 만들고 그린 한국화마카롱의 맛과 의미에 대해 '달언니'의 친절한 설명이 더해진다. 프랑스과자에 수놓은 한국화! 동양의 차가 영국에서 'Afternoon Tea'라는 유럽만의 귀족문화로 발전했듯, 유럽의 과자와 한국화가 만나 부산의, 아니 한국의 독특한 디저트 아이템이 된 것이다. 부산을 찾는 여행객들 사이에서 유명세를 탄 이유를 알 것 같다. 선물용으로 구입해 가는 손님도 많다.

가게 안은 찻잔을 겨우 놓을 만한 작은 바와 의자 서너 개가 있다. 마카롱을 주문하면 커피는 서비스. 마카롱과 함께 커피를 잠시 즐길 땐 달언니가 말동무가 되어준다.

목, 금, 토 3일만 오후에 문을 여니 방문 전 확인은 필수다.

영업시간

1:00pm~7:00pm (목, 금, 토 3일 운영)

부산시 부산진구 개금동 복지로 13번길 73-11

www.instagram.com/daltodang/





고급스러운 맛과 분위기의 조화

A'de Choi(아데초이)

부산 기장의 해변로를 따라 자리한 많은 카페들이 최근 핫플레이스가 되고 있다. 그중 일광의 소박한 바닷가 한 마을에 고급스러운 디저트카페 '아데초이'가 있다. 마치 시골에 사는 귀족부인 같다고 해야 할까? 외관은 모던한데 실내로 들어서면 강렬한 원색 인테리어와 샹들리에가 입이 벌어질 정도로 고급스런 분위기를 풍긴다. 창가 쪽은 낮에는 자연채광이, 저녁에는 조도 낮은 조명이 분위기를 달리 한다. 낮밤이 다 분위기가 있지만 동해 바다로 난 창가의 자연채광에 좀 더 마음이 끌린다.

다양한 디저트 케이크들과 커피의 맛과 향이 매우 고급스럽다. 가능성비 생각은 잠시 접어두기를. '디저트'라 쓰고 '작은 사치 작은 행복'이라 외우면 끝! 동경제과학교 출신 주인장이 양질의 맛과 비주얼의 디저트를 만들어낸다. 여타 카페보다 메뉴가 훨씬 다양하다. 디저트뿐만 아니라 브런치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 추천 메뉴가 따로 없이 모두 좋지만 무화과파이, 자몽타르트, 밀푀유, 뉴욕치즈케익 등은 특히 많은 손님들이 찾는다. 이렇게 외진 장소에서 카페가 오전 9시에 오픈한다는 건 브런치도 자랑할 만하다는 뜻!

영업시간

9:00am~10:00pm (명절 휴무)

부산 기장군 일광면 문오성길 162-1

T. 070-8804-1355



워라밸 시대

성우인의 일상을 살짝 엿볼까



내 손으로 만들어 쓰는 화장품

평소 피부가 민감하여 화장품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A 사원. 화학 재료가 필수로 들어가는 기존 화장 품을 쓰면 뾰루지가 올라오는 등 피부 트러블이 생기기 일쑤였다. 그러다 만나게 된 것이 서창공장 근처 마트의 문화센터에서 열리는 천연화장품 제작 강좌. 피부 타입에 맞는 기초 화장품을 만들어보기로 결심하고 주 1회, 4회 과정으로 개설된 강좌에 등록하였다.

강의료 외에 재료비를 지불해야 하고 계량컵이나 저울, 온도계 등은 강의 시 제공된다. 강사의 지시에 따라 정확한 계량이 필수! 조심조심 정확한 양으로 재료들을 넣고 저어가며 끓여 굳히는 과정을 해내었다. 결과는 대만족! 촉촉함이 남다른 스킨과 로션에 더해 립밤, 천연 모기 퇴치제, 천연비누까지 손에 쥐었고, 지금까지 잘 사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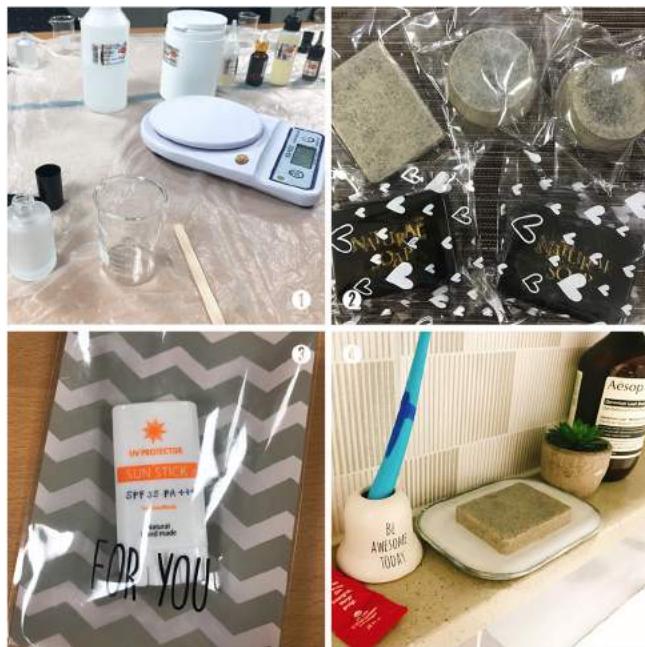


A 사원의 천연 화장품 만들기



A 사원

- # 강의료(4회 과정): 14,000원
- # 재료비/교재비: 15,000원(수업당)



천연 화장품, 이어서 Good~
믿을 수 있는 천연 재료: 중금속 걱정
없는 식물성 재료로 피부 고민 해결!

피부 타입 따라 기능 선택: 아토피,
여드름 등 재료에 따라 효과가
제각각이다.

천연비누는 선물용으로도 굿:
화학성분이 없는 천연비누는 한 번에
몇 조각씩 만들어지기 때문에 가까운
지인에게 선물하기 좋다.

내 마음대로 DIY: 원하는 재료로 원하는
향을 낼 수 있다.



- ❶ 정확한 계량을 도와줄 필수 도구들
- ❷ ❸ 선물로도 good~!
- ❹ 커피가루 스크럽 비누로 피부 트러블 100% 차단각



지난 7월 1일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현실화되었다. 근로시간을 줄이는 대신 일하는데 썼던 시간을 가족이나 자기계발 등 여가에 쓰자는 것이 취지이다. 이른바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일과 생활의 균형) 시대가 열린 지 5개월 여, 성우인들은 어떻게 일과 삶의 균형을 찾고 있을까. 다양한 활동을 통해 나름의 워라밸을 즐기고 있는 성우인의 일상을 살짝 들여다보았다.

특별한 경험과 자격증을 한번에

어딜 가나 쉽게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시대다. 골목 구석구석 생겨난 카페들 덕분에 커피에 대한 관심도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 이런 분위기를 타고 문화센터 등에서 어렵지 않게 바리스타 과정을 만날 수 있다. 평소 동기와 함께 유명한 카페를 찾아다닐 만큼 커피를 좋아하던 B 대리는 커피에 대해 조금 더 잘 알고 싶어 바리스타 강좌를 등록하였다. 총 11주 과정. 일주일에 한 번. 한 시간씩 진행되어 부담도 적었다.

강의는 커피의 기원과 역사, 커피콩 품종 등에 관련한 이론부터 커피 추출, 드립, 라떼아트 등의 실습 까지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다. 전체 과정 이수 후 함께 강의를 들었던 동료와 바리스타 2급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자격증도 취득하였다.

B 대리의 바리스타 2급 과정

B 대리

강의료(11회 과정): 63,000원
재료비/교재비: 150,000원
자격시험 응시료: 50,000원

바리스타 교육, 그래서 Good~
향으로 즐기는 커피의 진짜 매력:
커피의 종류와 각각의 특징을 배우고
향 좋은 커피를 얻는 방법까지 배울 수
있다.

아기자기한 라떼아트: 짜잔! 개인기가
추가 되었습니다~

내가 만드는 나만의 커피: 취향 따라
원두를 고르면, 취향 저격! 나만의 커피
탄생~

❶ 볼 때만 쉬운 라떼아트 ❷ 라떼아트 성공! 예쁘쥬? ❸ 향 진한
커피를 위해선 드립 기술이 필수! ❹ 원두 공부 ing

이런 추미 하나쯤은 괜찮아!

워라밸 프로그램 가이드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해 최선을 다하는 회사"

성우하이텍의 비전처럼, 일과 삶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일상. 그 속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으며 충만함을 느끼는 직원들은 성우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 미래 자원으로 성장할 것이다. 삶을 풍부하게 가꾸어줄 다양한 워라밸 프로그램을 만나보자.

워라밸 프로그램 가이드



일과 삶의 균형, 워라밸

저녁이 있는 삶, 워라밸 플랜

Work and Life Balance - 좋은 직장의 조건

워라밸 시대의 성우하이텍, 변화와 혁신을 향해

도움말

검색어 저장 끄기 | 자동완성 끄기

조금은 특별한 취미가 필요해?

근로시간 단축 이후 이른바 '워라밸 성지'로 불리며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곳이 백화점, 마트, 지역문화원 등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이다. 추미나 문화활동에 관심이 커지면서 다양한 주제의 강의를 마련하고 있는 문화센터로 발길이 몰리는 것. 실제로 한 백화점 문화센터의 가을학기 수강생은 여름학기 수강생 대비 약 12.5% 늘었고, 2, 30대의 비율도 늘고 있다고 한다. 요리, 문화체험, 운동, 자녀교육, 자격증 등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분야의 강좌가 연중 마련되니 체크해두자.



재봉틀로 만드는 소품 클래스

재봉틀을 이용하여 홈패션의 기초를 배우고, 다양한 인테리어 소품을 직접 만들 수 있다. 프릴쿠션, 티 매트, 에코백, 파우치 등 홈인테리어 소품부터 작은 소품까지 만들어보는 재미가 크다.



드론 클래스

드론을 실내에서 조립해보고 비행교육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아이들과 함께하면 비행원리 등 순수과학을 재미있게 경험하게 할 수 있고, 성인이라면 자격증 과정 커리큘럼을 통해 전문교육을 받아도 좋다.

건강과 재미를 동시에

최근 조사결과에 따르면 오피스 주변의 술집, 음식점 등의 매출은 줄어든 반면, 피트니스센터 등 운동시설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보고다. 이에 문화센터, 체육센터, 피트니스센터 등에서는 다양한 강좌를 마련하여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남들과 다른 특별한 것'을 추구하는 최근의 트렌드에 맞게 색다른 스포츠들이 인기다.



플라잉 요가

요가나 필라테스가 너무 정적이라고 재미없게 느껴진다면? 플라잉 요가를 추천한다. '요가 해먹'이라 부르는 천을 이용한 요가로, 스트레스나 적은 움직임으로 막혀있던 자율신경계 부위를 자극하여 마사지해주는 한편 균형 또한 강화시킬 수 있다.



스포츠 클라이밍

최근 각광받고 있는 실내 스포츠로, 균형, 지구력, 균형감각과 유연성, 집중력 등 다양한 신체 능력이 요구되는 전신운동이다. 홀드를 잡고 한 발 한 발 올라가 가장 높은 곳을 터치할 때의 짜릿함은 경험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을 것.

* 별을 쏘다 Vol.11, 32~33p

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저녁 있는 삶은 한편 자기계발을 통해 자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어학 강의를 수강하거나 독서모임, 시 낭송회 등을 통해 인문학적 소양을 쌓으며 세상을 보는 눈을 키우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원어민 회화 클래스

해외 출장이 많은 특성상 성우인들에게 외국어 회화는 필수. 회화 학원, 1대1 강의, 전화 영어, 화상 영어 등 다양한 방법이 마련되어 있으니 생활 패턴이나 개인의 성향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시 낭송회

시 낭송회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한 발 물러나 마음에 여유를 찾을 수 있는 모임이다. 시인에 대해 알아보고 작품 감상을 나누며 직접 시를 낭송해보는 과정을 통해 인문학적 소양 또한 쌓을 수 있다. * 별을 쏘다 Vol.13, 56p

열기 가득한 얼음나라의 겨울축제

꽁꽁 얼어붙은 겨울도 하얗게 태워!

핫HOT하게 태워!

휘~ 부는 바람이 온몸을 스쳐 지나면
절로 몸이 으슬으슬 떨린다.

동장군이 찬바람 물고 성큼 찾아왔다.
활기 가득한 사람들은 오히려 동장군을
반긴다. 너도나도 병어리장갑 끼고,
단단히 옷깃 여미고 약속 장소로 간다.
동장군의 위력이 셀수록 열기가 더
뜨거워지는 곳.

겨울축제 속으로 가자.







얼음나라 화천산천어축제

지난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은 축제. 5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또 2019년부터는 글로벌 육성축제로 지정된 명실상부한 국가대표 축제이다. '빅데이터 축제 대상' 최우수상을 받으며 화려한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축제장의 중심지인 얼곰이성 좌우로 펼쳐지는 눈조각은 산천어축제의 대표 포토존이다. 실내에는 특이하게도 핀란드 로바니에미시와 교류로 만든 국내 유일의 '핀란드 산타우체국 대한민국 본점'이 있다.

짜릿한 눈썰매는 아이들에게 인기다. 전용튜브썰매를 이용한 봅슬레이타워는 짜릿함이 두 배. 그 밖에 동계올림픽체험존, 얼음축구, 얼곰이피겨스케이팅, 썰매, 하늘가르기 등 즐길 거리가 많다. 세계 최대 규모의 실내 얼음조각광장과 선등거리페스티벌 등 연계 행사도 풍성하다.

주인공은 역시 산천어다. 1급수에만 사는 까다로움과 화려한 무늬 덕분에 '계곡의 여왕'이라 불린다. 30cm 이상 꽁꽁 얼어붙는 화천천 위에 구멍을 뚫고 얼음낚시를 하면 도대체 얼음물에서 나온 게 맞나 싶을 만큼 정열적으로 펼떡이는 산천어가 올라온다. 맨 손잡기에는 꼬리지느러미에 금반지가 달린 산천어도 만나볼 수 있으니 체크해둘 것. 직접 잡은 산천어는 회, 구이, 짬 등으로 즉석에서 맛볼 수 있다.



기간: 2019.1.5.(토) ~ 1.27.(일) **장소:**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및 3개면 일원

문의: 1688-3005

홈페이지: http://www.narafestival.com/01_icenara

칠갑산 얼음분수축제

아이들에게는 소중한 추억을 남겨주고 연인들에게는 겨울철 데이트코스로 안성맞춤인 축제다. 겨울왕국을 여행하는 듯한 '칠갑산얼음분수축제'에 들어서면 탄성이 절로 나온다. 눈길을 사로잡는 15미터의 거대한 얼음 분수가 발길을 멈추게 하고, 눈조각과 얼음조각 등은 겨울의 미술관을 연상케 한다. 눈과 얼음을 소재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얼음봅슬레이, 6종의 눈썰매장, 2종의 얼음썰매장 등 놀거리와 빙어 뜨기가 있다. 소 썰매와 트랙터가 끌어주는 강통스키는 마을 지자체 축제의 정겨움이 물씬 난다. 얼음조각, 눈조각 작품을 지나자 까르르~ 아이들 웃음소리 가득한 눈썰매장이 펼쳐진다. 밤이 되면 산골마을 겨울 풍경이 화려함을 더 입는다. 투명한 얼음 위 100만 개에 달하는 Led 조명이 축제의 분위기를 북돋워주며 열기를 이어간다.

인근의 관광명소도 빼놓을 수 없다. 청양의 대표 명소인 천장호 출렁다리는 길이 207m, 높이 24m, 폭 1.5m로 국내에서 가장 긴 출렁다리로 유명하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두 개의 대웅전을 갖춘 장곡사, 애국지사 면암 최익현의 영정이 봉안된 모덕사, 칠갑산 천문대도 둘러 볼만하다.

기간: 2019. 1. 1.(화) ~ 2. 17.(일)

장소: 충남 청양군 정산면 알프스마을 일원

문의: 041-942-0797

홈페이지: <http://www.alpsvill.com/>



간절곶 해맞이축제



새 천년의 첫날이던 2000년 1월 1일에 한반도와 유라시아대륙에서 가장 이른 시각에 해가 뜨는 곳을 조사한 결과 간절곶이 해가 가장 빨리 뛴다고 알려졌고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다. 축제는 이를 기념하며 시작되었다. 이곳 '간절'이라는 지명은 먼 바다를 항해하는 어부들이 바다 멀리서 이곳을 바라보면 꼭 간짓대(긴대나무 막대)처럼 보였다는 데서 유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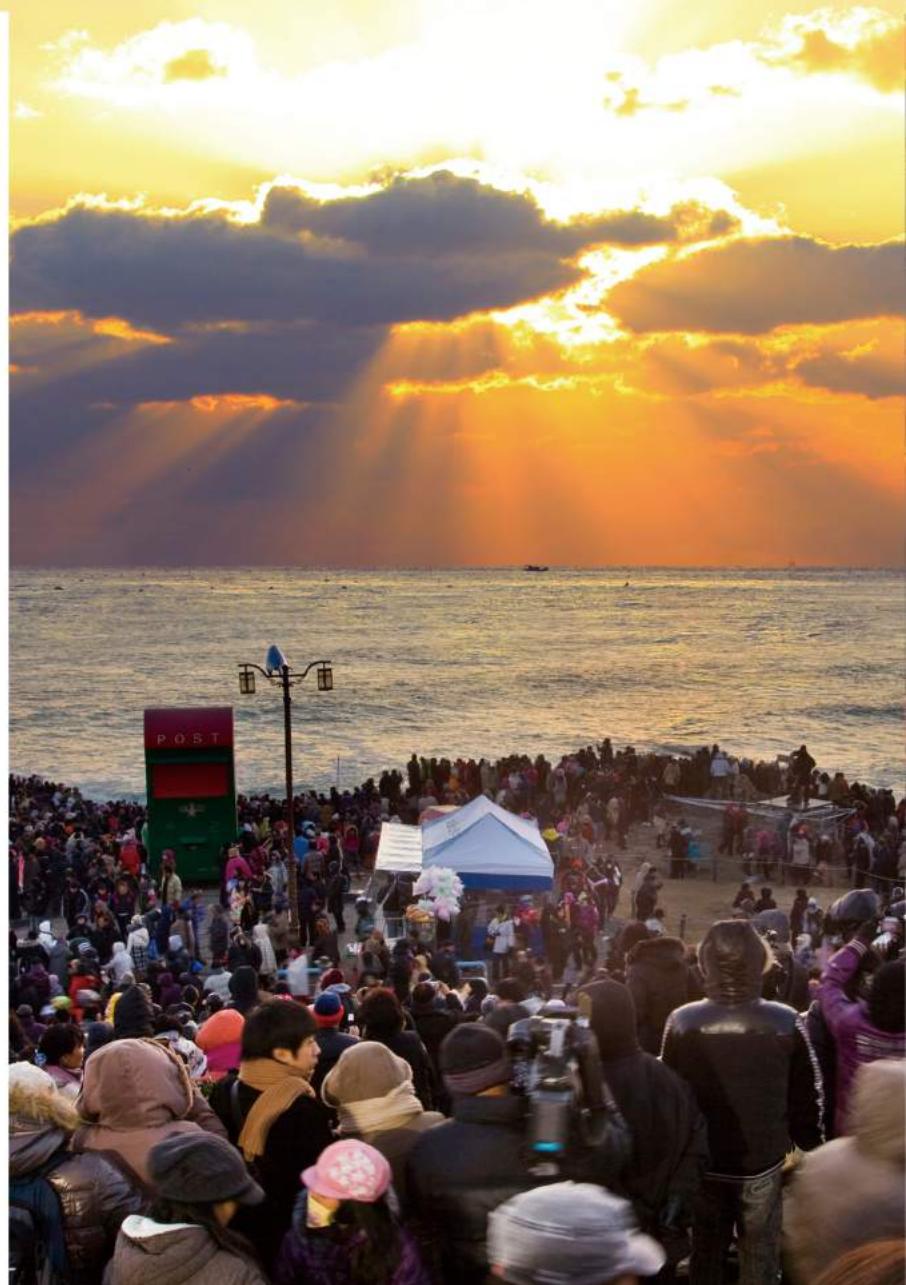
'간절곶해맞이축제'는 12월 31일의 전야행사로 시작된다. 간절곶 가요제 이후 본격적인 재야행사에 들어가면 '콘서트', '퓨전영상쇼', '멀티미디어쇼'를 비롯하여 '신년 메시지 보내기'와 '불꽃놀이' 등의 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진다. 1월 1일에는 해가 뜨기 전부터 해를 맞이하는 마음을 모아 '모듬북' 공연을 펼친다. 장쾌한 북소리와 함께 새해의 일출이 시작되면 사람들은 해를 바라보며 대나발을 불고, 소망의 새끼줄을 태운다. 이밖에도 다양한 부대행사가 마련되어 있고, 행사장 어디서건 온수와 커피 등의 음료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기간: 2018. 12. 31.(월) ~ 2019. 1. 1.(화)

장소: 울산 울주군 서생면 간절곶 일원

문의: 052-204-0312

홈페이지: <http://ganjeolgot.uljuulsan.kr/>





부산 크리스마스트리 문화축제

부산 원도심의 쇼핑 메카 광복로는 겨울 밤거리마저 화려하다. '부산크리스마스트리문화축제'가 2009년부터 개최되고 있기 때문이다. 화려한 크리스마스 조명과 장식들로 치장한 거리에서 사람들은 도란도란 축제를 즐긴다. 겨울 추위로 내뿜는 하얀 입김마저도 행복한 추억의 한 장이다. 매년 주제와 테마가 있는 트리장식, 겨울철에 어울리는 다양한 문화공연이 광복로를 찾는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축제는 매년 성공적이어서 부산의 대표 겨울축제로 단숨에 올라섰다. 2011년도에는 축제구간을 국제시장사거리까지 확대 운영하여 축제를 찾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더욱 많은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였고 '2011 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TPO)' 축제 분야 최우수상을 받았다. 해를 거듭할수록 시민 참여 폭을 더욱 넓히고 특색 있는 주제와 디자인을 준비해 광복로를 찾는 시민들과 관광객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다. 광복로 상가 및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어 축제가 더욱 뜻깊다.



기간: 2018. 12. 1.(토) ~ 2019. 1. 6.(일) 장소: 부산광역시 중구 광복로 일원
문의: 051-256-1225 홈페이지: <http://bctf.kr>

미국의 비즈니스 매너



매너는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관계에서 특히 중요하다.

Manners Makes Man(매너가 사람을 만든다)이라고 하지 않던가.

세계 최강의 자동차 차체 회사를 목표로 글로벌 시장을 누비는 성우인이라면 각 국가별 비즈니스 매너쯤은 익혀두자.

영화 <킹스맨>의 명대사처럼, 각국의 문화적 배경을 고려한 비즈니스 매너가 성우인을 더욱 빛나게 할 것이다.

이번 호에 만나볼 나라는 세계 제일의 경제대국 미국이다.

* 참고 자료: KOTRA 국가정보 자료

미국의 비즈니스 매너 #미팅 예절

비형식적인 면이 강한 미국인들은 편한 옷차림을 좋아하고, 연령이나 격식에 얹매이지 않으며, 최근 사무실에서도 캐주얼 복장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직급이 높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정장을 하며, 공식적으로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미팅이나 상담 등과 같은 경우는 정장 차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팅 시 인사를 나누거나 명함을 교환 할 때, 호칭을 사용할 때에도 관련 예절을 알아둔다.

- ✓ 미팅 시에는 반드시 정장을 갖추되 화려한 색감의 옷은 피한다.
- ✓ 악수를 나누거나 대화할 때 상대방과 눈을 맞춘다.
- ✓ 처음 만나는 사람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을 호칭할 경우 처음부터 이름(First name)을 부르는 것은 실례이다 (Mr. Mrs. Ms. 등이나 Dr. Professor, Reverend 등 직업을 뜻하는 명칭을 성(姓)과 같이 사용).

정장은 필수!



그런 말은 실례라구요!



미국의 비즈니스 매너 #문화적 금기사항

대표적인 다민족 국가인 미국에서는 피부색, 말투, 사회적 신분, 종교 등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이 어우러져 살아간다. 때문에 이런 특성들을 기준으로 상대를 비판하거나 차별하지 않도록 문화적 금기사항을 알아두어야 한다. 특히 뉴욕, LA, 보스턴,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등과 같은 대도시 지역에는 여러 인종들이 모여 살고 있으니, 문화와 관습이 다른 이들에게 오해를 사지 않도록 이상한 손짓이나 몸짓을 하지 않도록 조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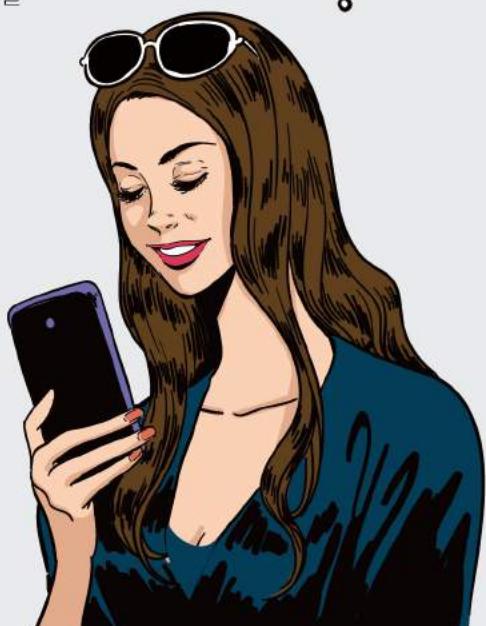
- ✓ 특정 종교, 인종, 여성 등에 대한 차별적 농담 금물
- ✓ 여성의 외모에 대한 언급 금물
- ✓ 손짓 몸짓 등 주의

미국의 비즈니스 매너 #식사 매너 및 선물

미국인 바이어와 식사 약속을 잡을 때에는 저녁식사보다는 점심식사 약속을 잡는 게 좋다. 미국인들은 저녁식사를 개인적인 관계를 위해 사용하는 경향이 강하다. 식사비용은 일반적으로 초대한 쪽에서 부담한다. 초대를 받은 경우에는 간단한 선물을 준비하는 게 좋다. 방문 후에는 초대 상대방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보낸다.

휴대폰 전원은
off!

- ✓ **팁 문화** 너무 적은 팁 금액은 초대를 받은 상대방이 무안해 할 수 있으니 주의한다.
- ✓ **휴대전화는 꺼둘 것** 타인과 식사 때 전화를 받는 것을 무례한 행동으로 여긴다.
- ✓ **남의 그릇 위로 팔을 뻗는 것은 금물** 소금, 후추 등이 필요할 때에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요청한다.
- ✓ **선물 가격 제한** 50달러를 넘지 않는 의미 있는 선물 (50달러 이상 시 공공기관에 기부됨)
- ✓ **초대 시 선물** 와인, 꽃이나 화분, 과일 바구니, 책 등
- ✓ **답례 카드** 상대방에게 선물을 받은 후에는 답례로 카드를 보낸다.



푸른 눈의 외국인이 남긴 큰 족적

10월 9일은 한글날.

한글을 창제한 사람은?

세종대왕.

그렇다면 우리글에 띄어쓰기를

도입한 사람은 누구일까?

고민 않고 답했던 첫 번째

질문과 달리 이 물음에

답하기란 쉽지 않다.

15세기에 창제된 한글에

비하여 띄어쓰기의 역사는

고작 140여년 남짓.

스코틀랜드 출신의

선교사에 의해서였다.



존 로스(1842~1915)

스코틀랜드 출생의 구한말 선교사.
1910년 건강 때문에 스코틀랜드로
돌아간 후에도 저술과 강연을 통해
한국에 대한 사랑을 이어갔다고
전해진다.

띄어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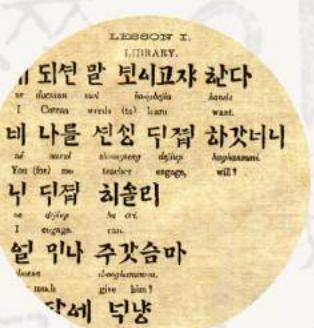
존 로스『조선어 첫걸음』(1877)

영어로 기록된 최초의 한국어

어학교재이자 최초의 띄어쓰기 기록.

‘한글 문장-영어 발음-영어 단어’의

구조로 작성되었다.





- 우리말은 띄어쓰기에 따라 뜻이 전혀 달라지기도 한다.
한글의 중의성(重義性) 때문이다.

아버지가 ✓ 방에 ✓ 들어가신다.	아버지 ✓ 가방에 ✓ 들어가신다.
아버지는 ✓ 양념치킨만 ✓ 드시잖아요.	아버지는 ✓ 양념치킨 ✓ 만드시잖아요.
무지개 ✓ 같은 ✓ 그대	무지 ✓ 개 ✓ 같은 ✓ 그대
양산시 ✓ 체육회	양산 ✓ 시체 ✓ 육회

웃고 넘길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전혀 다른 뜻으로 해석되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 문장의 뜻을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띄어쓰기가 아주 중요하다. 이러한 띄어쓰기를 우리글에 처음 도입한 이는 구한말 만주로 파견된 선교사 존 로스(John Ross)이다.

푸른 눈의 외국인이 어떤 계기로 한글에 이처럼 큰 영향을 미쳤을까.
훈민정음 창제 전 사용하던 한자의 영향은 우리글인 훈민정음을 창제한 후에도 이어졌다. 글자마다 뜻이 있어 굳이 띄어 쓸 필요가 없는 한자를 쓰는 데 익숙하여 우리글에서도 띄어쓰기를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구한말 서양문물의 도입과 한글 사용 인구의 증가로 문장의 뜻을 명확히, 제대로 전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한국인들의 도움으로 성경 번역 작업을 진행하던 존 로스 역시 이를 인지하였고, 1877년 영어로 기록된 최초의 한국어 어학교재이자 최초의 띄어쓰기 기록인 『조선어 첫걸음(Corean Primer)』을 출간하기에 이르렀다. 『조선어 첫걸음』은 한글 문장 아래 영어로 된 발음, 또 그 아래에 해당되는 영어 단어를 차례로 적는 구조로 작성되었으며, 영어식으로 자연스럽게 한글을 띄어 씀으로써 한글 최초의 띄어쓰기를 선보였다.

이후 존 로스는 1879년 영어로 된 최초의 우리나라 역사서인 『한국의 역사(A History of Corea)』를 저술하였고 1887년 신약성서 번역에도 참여하였다. 존 로스가 처음 선보인 띄어쓰기는 1896년 간행물로서 처음으로 『독립신문』에 적용되었고, 1933년 조선어학회가 <한글맞춤법통일안>을 내면서 보편화되었다.

주권을 잃은 동양의 작은 나라에 마음을 열고 그 문화를 인정하며 사랑한 외국인 선교사. 그가 우리글에 남긴 커다란 족적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글 자모는 아름다운 음성문자로 너무나 간단해서 모든 남녀노소가 읽을 수 있습니다.
소리글자이므로 한글로 인쇄된 어떤 책이든 자모만 배우면 읽을 수 있습니다.

- 『조선어 첫걸음』 중

모든 게 귀찮은가요?
아무런 의욕도 없나요?
행복이 멀게만 느껴지나요?
방전된 당신에게
사랑을 충전해드립니다.



국내

(주)성우하이텍

정관공장, 서창공장, R&D센터, 금형공장, 코일센타, 지사공장, 핫스탬핑, 서울사무소, 수원연구소

(주)아산성우하이텍

해외

북경법인, 심양법인, 연태법인, 창주법인, 무석법인, 염성법인, 충청법인, 인도SHI, 인도SSP,

우즈베키스탄법인, 체코법인, 슬로바키아법인, 러시아법인, 독일WMU, 독일WMU B, 멕시코법인, 미국사무소